

스스로 깨달아 이를 잘 알아야 이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재자니라. 보이나 보이나 이것만 생각하여 한마음 부처님께 온 생령 비치니라.

(法苑珠-광명품 322절)

역사의 부름앞에 땀땀하라

정권의 폭력만행...“퇴진고삐 늦출수 없다”



1. 지금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5월이 또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해마다 이맘때 5월은 따뜻한 봄기운보다 광복의 공안정국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희망의 미래보다 암울했던 지난날의 분을 곱씹어야 하는 절박의 역사의 동시이 이를 극복하려는 투쟁의 역사였다.

지난 26일 강경대군이 쇠파이프에 쓰러져 간 다음날 27일에 야당과 국민연합등 제야 시민단체들은 '고 강경대일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전국 20만명의 학생·시민이 참가해 사태가 심각해져서 이상언 신임 내무부 장관은 △시위진압을 해산의사로 △백골단을 경찰관으로 하는 교체의 카드에 급한 불길을 질다. 그러나 이후의 박정호 한전중공업노조위원장의 의문 투신사실, 반민주 보안사 안기부법, 경찰법, 교원지위법 날치기 통과, 9월에 40만 명이 참가한 6공이래 최대의 반정부 시위등 국민 분노의 파고가 높아져서 정부는 지금까지 수세적 태도에서 돌연 적극적 공세로 변신, 노내각사퇴 거부, 불법시위 강경진압및 주동자

죄, 민생치안부제를 역이용 '법외의 전제권력'로 공권력폭력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어 결국 공권력유지를 위해 모든 것을 공권력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폭력정권으로 전락한 것이다.

강군타살사건이나 그이후의 진행상황이 전경단의 문제로 국한시키거나 내무부장관경질, 전경운영제도개선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그것은 현 정권이 반민주적 폭력 독재정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최근의 시위강경진압, 원전태안은 노동자 사망, 폭력재벌 특혜, 수서비리, 폐농유출사건등이 기층국민의 생활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폭력적 탄압으로 해안 했던데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권의 폭력성과 그에 연유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근본적 해결없는 다시는 없어야 될 또다른 분신을 야기시킬 것이며 급기야 6공에 대한 국민의 결단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2.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재를 굳이 '강군타살'로 인한 정국이라고 현실시제선 안된다. 현재는 전두환 독재정권의 사생아로 출생한 반민주적 폭력정권의 당연한 결과이며 정권타도의 권력투쟁원칙상까지 집권 적체된 모순의 필연적 표출이고 당면 시기는 전체 기층민중의 총단결을 요구하는 때이다. 그러나 지난 4일, 9일 전국적 시위로 대중의 진출이 적고 고조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명확한 목표 '해체 민주당' '퇴진 노태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있지 못하고 또한 각계에서 분출되는 진출의지를 하나로 묶어줄 이렇다할 지도의 중심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강군치사사건'과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폭압적 강경진압으로 정권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국민대중과 연대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항상 사회변혁운동에서 선봉의 역할을 담당해온 우리청년 학생들에게도 아직 할 일이 잔존해 있다. 어제 강군의 노예에 이어 오늘 민방위 반대 투

본교생 5명등 민자당사 기습점거

본교생 5명이 포함된 전대협 구국결사대원 47명이 지난 13일 오후 12시 45분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30분동안 기습점거, 모두 연행되었으며 진압과정에서 정명호(인철4)군이 머리를 크게 다치고 심신해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1006호)에 입원해 치료중에 있다.

본교, 서울대, 연세대등 7개 대학 72명이 참가한 이번 민자당사 기습점거는 정명호(인철4), 이문환(사회3), 유진건(역교3), 정찬일(국공2), 김국현(경제2) 등 5명이 참가했으며 전원 연행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오늘(15일) 중구속영양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점거는 12시 45분 전원 양복을 입은 결사대원 72명이 민자당사 맞은편 삼보빌딩식당



결사항전 지난 13일 본교생 5명을 포함한 전대협 구국결사대원 47명이 여의도 민자당 중앙당사를 기습 점거해 30분만에 모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정명호(인철4)군이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심신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본교출신 전경 양심선언

“독재정권 방패막이 될수 없어”

본교 문과대 사학과 88학번으로 현재 서울시경 제1기동대 63중대소속 전경인 이종수군이 지난 13일 오전 10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양심선언을 통해 부대부대를 거부하고 전경의 불법적 시위진압동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연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군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재정권의 방패막이 되어 민중의 민주화요구를 폭력적으로 짓밟아야만 했다”고 말하며 이렇듯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이 암울한 시대에 양심선언을 결단하게 됐다며 양심선언 이유를 밝혔다.

이군은 또한 양심선언을 통해 △강경대군 살인사건의 살인교사자 즉각 구속처벌 △선경의 불법적 시위진압동원 즉각 중단 △선-외경, 백골단즉각 해체 △노태우정권 즉각퇴진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군은 70년 1월3일생으로 88년 사학과에 입학, 사학과 사회교육부장을 맡으며 김진태군 비상대책위에서 활동해 오다 지난해 6월 26일 일대, 전경으로 차출되어 시위진압에 동원됐으며 인젠가 지금 구속된 백골단처럼 살인자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치를 떨며 휴가중 탈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변수

내고 선명체화된 거칠것된 생각을 논파하는 파사를 나타낸다. 불교의 근본교범이 중도사상과 무아제 공사상이 있거니와 불교는 본래 비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논리

유비무(非有非無)의 중도를 마찰가지이다. 아군과 적군

동약의 민족혼이여 모진게 부활하라

이제 더이상 무관심을 핑계로 역사에 뒤쳐지지 말자.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정의에 찬 청년학생에 의해 굴러왔음을 안다. 4·19때 경무대로 달려가던 노회두 선배를 비롯한 수많은 선배의 민족혼은 어디로 갔는가.

동약의 청년들이여, 지식의 굴레 속에서 그대의 임무를 받기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해 보자.

시대와 역사는 우리에게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그 부름에 애써 눈감고 귀막으려 하지 말라.

동약의 민족혼으로 그대의 목소리를 외쳐라.



동대신문사

동학의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획좌담

- ... 지난 총학 선거서 양후보가 소모임...○
- ...과 학회의 활성화를 내걸었던 이들의...○
- ...중요성은 간부를 내에 인식돼 있었...○
- ...다...○
- ... 그러나 현재의 건설의 과정은 어디...○
- ...까지 와 있다. 간부의 문제점은 없는...○
- ...가. 우리가 배울 모범은 무엇인가...○
- ...이러한 물음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 ...이번 좌담을 마련하였다...○

▲사회=먼저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자주적 진출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시작된 사상적 변화는 89년 공안학파라는 객관적 정세를 노동대중들의 힘으로 깨뜨렸고 스스로의 모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이 학생운동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소모임 건설의 문제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제들이 건설과정에서 형식·도구화시키는 등 몇몇 한계와 오

모임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와 얼마나 목적의식적 지도를 결합시키려 했는가 라는 주체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김종욱 (총학 학술부 차장)

류를 조정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소모임에 대한 사상적 각성을 이뤄 내며 현재 동아내 문제점들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모임의 개념에 대한 규정부터 내리자면, ▲남경부=일정한 지향을 갖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뤄진 작은 모임입니다. 친목도모와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모임외에도 청년학생의 학문적 이해를 담보하는 전공학회까지 소모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최순호=위의 말과 관련하여 우리 운동은 85년 이후 학회가 부활되면서부터 이전 소수 선각자만의 운동이 아닌 압도적 다수의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많은 학우들을 학생회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전공학회같은 소모임이라 생각됩니다. ▲김종욱=낮은 수준의 친목도모부터 높은 수준의 정치적 지향을 갖는 모임들까지 형식과 내용에 구애없는 것이 소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임이 학생회내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의 학우들의 지향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과학적 회에서 받아안지 못했던 기간의 사업의 반성속에서 소모임의 활성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에 있

참석자: 남경부(문과대 국민윤리학과 3년) 김종욱(사회대 정치과 4년) 최순호(사범대 국교과 3년) 사회: 유기용(본사 사회부장) 때: 5월12일 오후3시 장소: 본사 회의실

로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집행부가 얼마나 소모임에 대한 사상적 관점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느냐가 아직도 문제입니다. ▲김종욱=저도 올해에 과의 소모임에 참여했는데 두가지지를 느꼈습니다. 우선 학생회가 그동안 대중들의 자주적 진출을 받아안지 못했다는 것, 두번째로 소모임 건설은 무조건 만들고보자는 아닌 자주민주주의의 운동의 대의에 복부하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의 제로 독서토론회를 시작했는데 학우들의 윤리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내용은 쉬운 소설책부터 읽고 토론하는 방식이었는데 학우들이 자신이 설정한 책으로 하나가 눈에 띄게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진행중에 지적변화가 자연히 이루어졌는데 '살아있는 무덤'을 읽으며 북한 바로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간부의 결합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뤄 지더군요. 여기서 소모임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의 변화를 믿지 못하고 사업의 성과만을 앞으로 세우는 간부의 경직된 자세입니다. 소모임의 성격은 '어떻게 학우들로부터 배울 것인가'라는 간부의 자각된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을 어떻게 회 사업으로 끌어들이는가 남습니다. ▲최순호=저희의 경우 학회·소모임은 정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회가 건설되며 나타난 전망의 부재로 해결할 과제가 남습니다. 기존 노레파의 경우 사회과학은 집중해야 한다는 간부들의 조급성과 자연히 이루어지겠지만은 대가주의적 자세가 많이 나타났는데 결국 해결의 관점은 일일이 학우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문제를 물어보고 하는 간부의 현실성입니다. ▲남경부=지도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책상에만 있으면 풀리지 않아요. 아가 얘기처럼 발로 뛰다니며 그들의 문제와 요구를 듣다보면 그

사람의 변화를 믿지 못하고 성과를 앞세우는 경직된 태도는 비판되어야 하며 '어떻게 학우로부터 배울 것인가'라는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였는데 각 과단위에서 주체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남경부=저희과와 '윤리연구회'에 제가 참가하면서 모임의 변화를 많이 생각했는데 모임의 운영이 잘되지 않자 학우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모임의 참가자세가 줄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

식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모임이 힘있게 건설되는 못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1학년 학번인데도 강경대일시에 대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안건으로 열린 토의에서 아무도 토의에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

우리과는 전공에 대한 열의가 높은데 이들을 학생회로 묶어 세우려는 노력으로 전공학회 건설이 돼야겠습니다.

‘저고 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1학년에 팽배해 있던 겁니다. 그런데 트리를 '나의 대학생활'로 놓으니까 많은 학우들이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레 같은 대학생으로서의 강경대일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후 그 학년에서 작은 실천이나마 모범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우들의 소박한 문제의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현재 우리학과에는 많은 양의 소모임이 존재하고 있지만 학우들의 삶속에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도하려는 혁신된 주체의 내용이 부족합니다. ▲최순호=저희과는 소모임이 대부분 90학번이고 학생회 집행부는 모두 89학번입니다. 90학번은 소모임 장들의 경우 총체적 인식이 부족하고, 이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먼저 과 학생회장으로부터 생활속의 모범이 되도록 전파되고, 다시 과단위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남경부=지금 현재의 간부로서 열심히 요구되는 것은 모범의

이 필요하지요. ▲사회=동학내 모범의 하나로서 국교과의 지난해 추천행사준비 과정을 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최순호=작년 추천을 준비하며 약70명의 학우가 참여했고 직접 대일시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이후 그 학년에서 작은 실천이나마 모범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우들의 소박한 문제의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현재 우리학과에는 많은 양의 소모임이 존재하고 있지만 학우들의 삶속에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도하려는 혁신된 주체의 내용이 부족합니다. ▲최순호=저희과는 소모임이 대부분 90학번이고 학생회 집행부는 모두 89학번입니다. 90학번은 소모임 장들의 경우 총체적 인식이 부족하고, 이로부터의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먼저 과 학생회장으로부터 생활속의 모범이 되도록 전파되고, 다시 과단위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남경부=지금 현재의 간부로서 열심히 요구되는 것은 모범의

▲최순호=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비롯된 주체의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김종욱=먼저 대중적 태도를 굳건히 한 생활에서 우리나를 가정에서 비롯된 주체의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최순호=우리의 변화운동에서 학우들의 자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압도적 다수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곧 소모임의 활성화된 학생회 강화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사회=이러한 자리가 동아내 소모임의 활성화, 더 나아가 학생회 강화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부=사람이 모범으로 서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소모임도 선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와 사파관에서 한 선배가 아침마다 일찍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본 후배들이 자발적으로 그 선배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 사람의 변화, 주체의 혁신이 없는 사업은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을 알았지요. ▲사회=그렇다면 이러한 소모임의 성과들을 어떻게 학생회로 끌어들이야 할지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최순호=현재 우리의 실정에서 어떻게 회계제내에 인입시켜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학생회에 사람이 없는 실정에서 부서서제내에 있는 것도 타당합니다. 소모임의 장이 과운영위로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현재 과 운영위 힘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의 참여는 특별한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남경부=아무리 이상적 체계를 갖추어도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정형화된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니요. 문제는 소모임을 애정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 갈 간부들 키우는데 것이 우선 되어야지요. ▲김종욱=지금의 소모임의 내용성을 채우기 위하여, 소모임장들



남경부 (국민윤리학과 학생회장)

간의 모임을 정제화하고 이 속에 일정부분의 지도가 결합해야 합니다. 학생회와의 관계는 그 이후 제 기해보 늦지 않을 겁니다. ▲사회=지금 각 과에서 전공학회 건설에 나가는 곳이 많은데 전공학회의 의의는 어떻습니까. ▲남경부=청년학생의 계층적 요구인 학문적 이해가 담보되지 않는 소모임은 구성원에게 진보를 주지 못합니다. 자기 과에 근거하고, 관심어하는 학우를 전공에 뿌리내려 진보적 학문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과에 대한 전망이 결합된 전공학회가 건설될 때만 여타 소모임도 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전공학회는 우선 강의실 운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막연한 진보적 학문의 주장이 아니라 강의실에서부터 전공에 대한 확대된 연구에 대한 관심을 학우들에게 인식시켜주어야 하며, 이 속에서 발굴된 인재를 중심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간부들이 인정하건



최순호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안하건간에 학우들의 생활영역의 주요인 곳은 강의실입니다. 무조건적인 전공학회의 대한 주장이 아니라 학우들과의 공동된 생활영역에서부터 비롯해야 합니다. ▲최순호=우리의 경우 북학행사는 200명이 참가했지요. 추천 준비를 학우 한명 한명에게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원들의 이해와 실정을 파악한 후 전공학회의 대한 건설이 되어야지요. ▲김종욱=먼저 간부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생활속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전공에 대해 떠들기만한 학우들이 많지 않지요. ▲남경부=학회의 연대활동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교과과정같은 경우 전공학회와 밀접히 연관돼 있으므로 교과과정개편에는 공동활동이 가능하겠지요. ▲사회=오랜기간 자리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경부=무엇보다 내가 먼저 고민하고 모범을 창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소모임에 대하여 자기의 일로 여기며 애정적 열의가 있는 사람이 절실한 때입니다. ▲김종욱=먼저 대중적 태도를 굳건히 한 생활에서 우리나를 가정에서 비롯된 주체의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최순호=우리의 변화운동에서 학우들의 자주적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압도적 다수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곧 소모임의 활성화된 학생회 강화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사회=이러한 자리가 동아내 소모임의 활성화, 더 나아가 학생회 강화에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991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각대학원 학생모집

불교대학원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① 불교학과: 한국불교, 중국불교, 인도불교, 선학
 - ② 불교사학과: 한국불교사, 중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교예술평론
 - ③ 불교사회학과: 사회복지, 포교학
 -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6. 4(화)~6. 13(목)
 - 전형일시 및 장소
 - ① 석사 및 연구과정: 1991. 6. 21(금) 13:00 본대학원
 - ② 관리자과정: 1991. 6. 22(토) 11:00 본대학원
 - 전형방법
 - ① 석사학위과정: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 ②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① 조계종 재계승려는 소정의 장학금 지급
 - ② 관리자 과정 중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 수여
 - ③ 석사과정 사회복지전공 졸업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 전화 267-8131~9(교)3444~5, 직통 269-8359

행정대학원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① 행정학과: 일반행정, 공공정책, 지역개발, 관광행정, 언론홍보
 - ② 안보행정학과: 외교국방, 방위산업, 군사전략, 북한학
 - ③ 안전관리학과: 안전관리
 - ④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 교도행정, 소방행정, 사법행정
 - ⑤ 복지행정학과: 사회복지
 - ⑥ 노무행정학과: 노무행정
 -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6. 10(월)~6. 18(화) 본 대학원
 -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6. 22(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① 석사과정: 전공(행정학), 서류전형, 면접
 - ② 연구,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 특 전: ① 공무원에게 졸업시까지 장학금(수업료30%) 지급
 - ② 우등장학금, 총장장학금, 동문장학금 등 장학특전이 있음
 - ③ 사회복지전공 졸업자는 1급 복지사 자격 취득
- 전화 267-8131~9 (교)2263 직통 267-8574

경영대학원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① 경영학과: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 ② 회계학과: 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 ③ 무역학과: 무역이론, 무역관리, 국제경영
 - ④ 경제학과: 관리경제, 국제경제
 - ⑤ 전자계산학과: 시스템스솔루션, 전자정보처리
 - ⑥ 노사관리학과: 노사관리
 - ⑦ 부동산학과: 부동산
 -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6. 3(월)~6. 12(수)
 -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6. 15(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 ① 석사과정: 영어, 논문, 면접
 - ②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① 해외 제대해군 등의 연수참가 기회 있음
 - ② 전자계산학과 및 생산관리전공은 본교의 컴퓨터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③ 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
- 전화 267-8131~9 (교)2273 직통 267-8140

교육대학원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 ①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경영
 - ② 교과교육학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윤리, 철학, 미술, 한문, 체육, 영어, 물리, 화학, 생물, 가정, 전산, 종교
 -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5. 29(수)~6. 7(금) 17:00 마감
 -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6. 15(토) 13: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전공, 교육학) 및 면접
 - ② 연구과정: 필기시험(교양) 및 면접
 - 특 전
 - ① 우대전형: 대학의 조교수 이상(전문대학 이상), 초·중등 현직 교사 및 교감, 교장, 교육행정기관의 장학사, 연구사 등
 - ② 장학: 공무원, 공·사립 교직원 및 조계종 재계승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전화 267-8131~9 (교)2283 직통 279-8052

정보산업대학원

- 모집과정 및 학과: 석사과정,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 ① 정보통신학과: 정보관리, 전자계산
 - ②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 출판관리
 - ③ 정보통신학과: 정보통신
 - ④ 산업개발학과: 산업개발
 - 원서교부 및 접수: 1991. 6. 10(월)~6. 19(수) 17:00
 - 전형일시 및 장소: 1991. 6. 22(토) 14:00 본 대학원
 - 전형방법
 - ① 석사과정: 필기시험(영어), 서류전형, 면접
 - ② 연구과정, 관리자과정: 서류전형, 면접
 - 특 전
 - ① 현직 언론인에 대하여 특별우대장학금 지급함
 - ② 공무원, 군인, 국가산업체 중견 간부요원에 대하여 각종 장학금 지급함
 - ③ 재학시 총장장학, 우등장학 등 각종 장학특전 있음
 - ④ 학과 지원은 출신 대학 전공학과에 관계없음
- 전화 267-8131~9 (교)3292 직통 277-6511

기타 자세한 것은 각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기의 민주화” 민중에게 주는 선물

민자당, 그 반민주성을 확인한다

민자당 = 권력의 시녀(?)

지난 5월9일 권력의 총출현 시너집단, 민자당의 창당 1주년을 우리는 거리에서 ‘해체 민자당’이라는 정당한 투쟁속에 맞이하였다. 사실 1년을 즈음한 민자당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지만, 필자로서는 “어떻게 그들을 평가해야 할까?”하는 독백으로부터 시작할 수 밖에 없다. 민자당은 집권당이다. 집권당이라는 당면한 국민의 지지속에 자신의 권력을 쥘 수 있고 그것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들의 분상상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 정당이었다.

이러한 정당은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주인의 국민에게는 그저 군벌 집단이요, 폭력집단일수 밖에 없는 데, 이것 이외의 또다른 것으로 그들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조직폭력배와 똑같은 집단에 대해 지나치게 정중할 대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더욱이 민자당에 대한 평가는 사실 노경전에 대한 평가와 같은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민자당이 군부 독재정권의 시너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라도 모든 양심세력은 “타도 노태우!”와 “해체 민자당!”을 동성어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

치사사건 이후...

노경전은 교묘한 속수무늬=6.29와 부정선거라는 여론을 달고 출범시킨 것이지만 여론이 이전의 박정희나 전두환정권의 군사적 쿠데타와는 달리 신기라는 과정을 통해 정권을 장악했다는 사실로 인해 그동안 민주화를 추진해온 것처럼 자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는가? 강경대, 박승희, 김영근, 천세홍 학생의 죽음과 박정수, 김길석의 죽음은 그들이 어떠한 집단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다. 백주대로서 최파이프를 사들인 때려죽이는 경건, 젊고 꽃다운 젊은이들의 타살과 연이은 분신을 보고 불은세력의 배후조종 운운하며, 자신들의 죄행을 덮어치려는 부도덕의 파편지한행위를 일삼는 이들은 살인을 방관할 집단이라 평가하면 될 것이다.

전환기의 공안정치 그리고 민주화 과정

저들이 의지는 전환기로 새로운 질서는 무엇인가? 사실 5년 단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노태우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기정권이 자신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정권이여야 했고 뛰어난 국제 정치적 감각과 공작수완을 보유하

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92-93년의 권력체편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신식민주 지배질서구축에 사활적으로 매달려왔다. 88년 이래 확대되는 국민의 민주, 민권익과 자주, 통일외교에 더이상 6.29와 같은 속빈강경의 개량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89년 이후 민주세력을 ‘좌익폭력세력’,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을 일상화하여 사회진반을 폭력으로 물들이기 시작, 5공으로 회귀하더니, 90년초에는 5공전세력파와 오직 대권담취에 한 혈안인 변절자 김영삼과 합작하여 민자당을 창당하기에 이른다. 이리하여 친미파소속한 민자당은 국회의원 2/3석을 넘는 숫자를 과시하는 ‘무혈투대마’로 의사당의 주인이 되었다.

이후 저들은 국군조직법, 방송법 등 온갖 악법의 날치기통과 등 저들이 자랑하는 의회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만행조차 서슴치 않으며 내각제를 통한 재집권전략을 착실히 진행해왔다. 90년 10월 보인사 불법사찰문제가 더없이 선봉된 ‘법외와의 전쟁’ 이후 현재까지

장기집권 위한 공안통치 살인주범 물가는 오르고 재벌은 배불리고 정치적 무력감 의식적으로 조장

경찰과 그들의 허수아군을 통한 야만적 폭력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려왔다. 학원, 노동현장, 언론사 등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무차별적인 폭력테러를 서슴치 않았고, 최파이프, 각목은 물론 M16자동소총까지 국민의 어깨에 겨누는 공안정치를 일삼아온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 안은 5공시절보다 더한 인권을 사각지대, 절정없는 감옥으로 전변되었다. “시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걸기하라”, “소신껏 일하다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상참작을 할 것”이라는 통치권의 독려하는 무소불위의 폭력과 폭력에의 의존, 폭력만능을 불려왔다.

이에 부속하여 저들은 변절자 김영삼의 내각제과동이후 12.27개각을 통해 현재의 노태우를 위시한 이른바 친위세력을 내각에 포진, 신공안통치를 행해왔다. 이는 사실 그들의 친미군사독정권을 폭력파악으로 재창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그럴수록 그들의 말기적 성격과 노골적인 폭력적 의존은 심도를 더해왔다.

게다가 의원의유사건, 수사사건, 기초의회선거 등 공안세력의 공작으로 조성된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불신, 정치적 무관심의 유포등은 광역의회선거 실시이후 저들의 정권창출을 위한 어떤 만행에도 불감증으로 수수방관하는 대증상을 조

작해내기에 충분했다. 여기까지의 상황이 그들이 상정하는 전환기인 것이다. 이른바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조성의 완료기’를 지나 본격적인 내각제개헌작을 앞둔시기였던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불행

‘법외와의 전쟁’선포 이후 국민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정권의 폭력성은 이번 강경대 학생의 불타는 것이다. 따라서 말단정권의 구속이나 일개 장관의 경징, 말한인 사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두말할 나위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불행한 일’이라는 노태우대통령의 발언은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예도라기 보다는 정권체질상의 가도를 달리는 노태우대통령 자신이 ‘불행한 일’을 당하여 어쩌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지고 모른다라는 의미의 불행으로 받아들여진다.

가벼워지는 장바구니, 돈은 재벌에게 관련 민자당 창당이후 재정지출

의 확대로 더욱 심각해진 물가폭등으로 인해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 가운데에도, 현재에도 8천여명이 전세금으로, 현재 장로 노동자들의 목재가 마모되는 가운데에도, 저기에 페를수며도 오장육부까지 썩어부패하는 데도, 독점재벌들의 배만 불러주는 정책적, 금융적 각종 지원과 구조개편이 이루어져왔다. 재벌에 대한 여신규제철폐는 대표적인 것이고, 금융실명제의 유명무실화는 이미 우리의 많은 기억에서도 사라진 일이 되었다. 반면 그들은 무노동무임금의 억지로도 부족하여 이제는 ‘생의기간의 회사수 손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신종 논리로 이미 20세기초에 확립된 노동자의 권리까지도 박탈하는 민주화를 진행해왔던 것이다. 또한 부정부패의 실상은 가까운 수지벌취만으로도 더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게다가 91년 2월 현재 97.2%에 달하는 경제개발은 농수산물시장은 물론 금융, 증권시장개방, 정보통신, 유통시장까지 경제의 주요동맥을 외국독점 자본의 손아귀에 넘겨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개입에도 불구하고 독점자본만은 정부의 각종 특혜유자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살아남을 것이지만 중소기업의 몰락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이러한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것은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북방정책과 통일운동탄압

저들이 자랑삼는 북방정책은 어떠한가? 사실 저들의 북방정책은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것은 한소수교, 중국과의 무역대표 부설이 우리의 국력의 상징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소수교의 대가로써의 30억달러 원조제공은 이의 구체적인 예중에 다들 아니다. 우리가 소련에게 줄 돈이 어디 있는가? 노봉자의 임금 몇만엔 올리는 것도 백백단, 전쟁의 유지비, 폭력행사 비용으로 때워야 하는 정권이 아니냐.

민간차원의 통일대화에 대한 저들의 장구특정주의를 위한 담판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남과 북, 해외의 사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은 두말할 나위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불행한 일’이라는 노태우대통령의 발언은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한 예도라기 보다는 정권체질상의 가도를 달리는 노태우대통령 자신이 ‘불행한 일’을 당하여 어쩌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지고 모른다라는 의미의 불행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것은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것은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것은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기 때문이다.

운태호 (민중민주운동 연구소)

양심선언한 본교 출신 전경

“양심선언이라는 말처럼 제 자신의 자그마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며 소감을 밝히는 이종수(사학과 88학번). 아 니 지금은 양심선언이라고 불러야 할 이군은 지난 13일 저녁 연세대에서 만나 보았다.



63중대 2기동대 일경 이종수(사학과 88학번)

이군은 지난해 6월 군입대후 전경으로 차출, 지금까지 대국민 시위진압작전을 수행하던중 지난 13일 연세대에서 ‘진경의 불법적 시위진압을 중단하고 강경대군치사사건의 주범인 내부부장관, 치안본부장, 시정국장을 즉각 구속, 처벌해야한다’는 양심선언을 발표하였다.

“원래는 국민을 보호하고, 조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진압때마다 무참히 때리는 현실에서 전경으로 있는 한 인젠가는 제 자신이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순간 이제는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군은 이후 지난 7일 휴가를 받고 자신의 신변을 정리한후 양심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지금은 중계임상대라 할수있다. 얼마전 정부에서도 인정했듯이 전경의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임무라 할때 전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국민은 간첩으로 상정하는 것이며, 군병력을 상주시켜 권력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경의 시위진압은 엄연한 불법일 수 밖에 없다. “불법적 시위진압을 한 책임자는 구속처벌되어야 합니다. 강경대군은 몇명의 백발단이 아닌 자신

는 정권에 의해 진압에 나서는 겁니다. 결국 전경과 민중의 대치상황은 잘못된 사회현실이 주범이지요”라며 전경내부의 분위

는 정권에 의해 진압에 나서는 겁니다. 결국 전경과 민중의 대치상황은 잘못된 사회현실이 주범이지요”라며 전경내부의 분위



63중대 2기동대 일경 이종수(사학과 88학번)

기를 전하는 이군은 “강경대치사 사건이후 통료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욕만 나오지요. 저는 다만 일찍 양심선언을 한 것 뿐입니다. 대중들의 무명이 고요할수록 양심적인 전경은 더욱 늘어갈

전경도 퇴진투쟁에 한몫

“불법적 진압동원, 내무장관 고발합니다”

국을 지킨다는 지위를 갖지 못하는 군대의 임명자체를 거부해야 했지만 용기가 모자라 군대에 들어갔다”는 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투경찰로 차출돼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과정이 민중들의 투쟁에 조금이나마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다녔고 있었습니”라는 이군은 평소 시위진압에 나설때마다 경권의 시너로 전락한 자신의 처지와 자주 민주·통일 운동의 대의에서 많은 갈등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생각이 심화되어가던중 강경대치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연세대정문앞에서 군부를 하면서 양심선언의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강경대군이 죽었는데도 완전 무장을 한채 군부를 서면서 이

의 정권을 폭력적 수단으로 유지하는 정권이 죽은 것입니다”라는 이군은 덧붙여 전경의 해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군은 본래 3기동대 7중대에서 7중대가 의정으로 대체되면서 2기동대 63중대로 전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금 정권유지 백발단의 후폭탄 대채, 전세해체거부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중에 민중들의 요구사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보인다고 말했다. “전경들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으면 흥분하지요. 하지만 제가 군부를 하면서 만난 대부분의 전경은 결코 시위대에 적의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중들이 의지는 구호에 공감하지만 뒤에서 떠미

것입니다”며 전경도 ‘민중의 자식’임을 강조한다.

지난해 5.9투쟁시 전경의 최후탄으로 부상당한 김진태군의 대 책위에 활동한적이 있으며, 또한 전경으로서 지난해 ‘어머니 당 신의 아들’영화상영시 학내진입을 헌적이 있는 이종수군. 어쩌면 극에서 극으로 치닫는 사회모순의 첨예한 현실속에서 살아가는 이군은 “결코 양심선언을 한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며 말을 맺는다.

한때 벌국민 대궐회의에서 보호받고 있는 이군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며 말을 맺는다. <유기용 기자>

동막로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 “학생은 최파이프로, 노동자는 독가스 4천발 민중 다죽이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민자당창당 1년을 맞은 지난 9일 노동자, 시민, 학생들 10여만명이 시청에서 있을 국민대회가 원천봉쇄되자 서울 곳곳에서는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이후 그동안 누적이었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다.

본교 학생들이 운집한 시위대는 동대문에서 종로쪽으로 굳건한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행진하며 “애국시인 하나되어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87년 6월한쟁을 회상시키는 장엄한 대모를 연출했다.

최근길의 적정인도 동참한 가운데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의

의 박수를 받으며 종로3가 부근까지 진군했을때 경찰이 다연발총포탄과 물대포, 시파탄을 난사하며 평화적 시위를 해산시키려하자 앞쪽의 학생들은 시민들이 건네준 맨투맨으로 눈을 싸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뒤의 시위대는 최후탄가스로

5월9일



호흡이 곤란함을 느끼면서도 “휘둘러치는 거센바람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승리라...” 등의 노래를 목이 터져라 폭력정치 보란듯이 하나된 투쟁의 의지를 과시하고 있었

다. 경찰의 저지로 시위대는 진로를 바꾸어 서울역으로 행진하던 중, 청계천에서 전대협위원장인 김중서(한양대)군이 지도 하던 울지포커서은 대규모 시위대와 또다시 하나가 되었다. 시위에 대한 동지애로 만난 두시위대는 청계천고가도로가 무너져라 커다란 합성을 토해냈고 행진하던 시위대는 소행트럭에 탄 김중서의장애에 길을 열어주며 “전대협전군가들 부르며 왕복6차선도로를 가득 메운채 뒤를 따라 힘찬 투쟁의 열기를 다졌다.

이날 5.9민자당구대대회는 정부가 부정부위로 규정하여 국민들을 향해 폭력을 휘둘러 진압하려 했지만, 이미 전국민들로 부터 불신임을 받은 정권의 행동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각계각층의 국민은 연대속에 노태우정권투쟁의 길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김기희 기자>

꿈을 꾸는 꿈을, 미래를 경영하는三星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던 그순간이 또 하나의 기술의 벽을 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 새로운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들어낸다는 것과 같다. 그 안에는 나의 지식, 사고하는 방법, 성격 그리고 희망같은 것들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안에는 내일을 향한 나의 의지도 들어있기 마련이다. 일본이 고해상도의 슈퍼 VTR을 개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후 그들은 그 기술을 국비에 포함시키고 외부에 절대 노출시키지 않았다. 21세기를 향한 이 세대의 마지막 VTR이라고도 불리는 그 첨단기술을 팔내 자기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그 기술이 절대 성취될 수 없었다. 끊임없이 도전해 왔으나 간직할만한 성공이라고 여겨질 성공이 나에게 없었다기 때문이었고, 아마도 대학시절 때부터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두가 놀랄만한 또 하나의 새로운 나,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내놓고 싶다는 꿈을 실현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수퍼VTR로서의 자력을 갖추기 위해 수행해오던 400선 이상으로 높은 것, 전혀 다른 성격의 회로부품과 기계부품을 결합시키는 것 등 숱한 난제들을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랬기에 연구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의 기준도 엄격한 기술수준의 기준도 일본이나 그 누구가 제시할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다. 어쩌면 이미 기술시세의 대성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그 누구도 기술을 주지않는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절대 좌절이었던 우리의 의지를 끝까지 믿어준 회사의 과감한 지원은 기술의 벽을 넘는 하나의 도약대가 되어주었다. 결국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한 순간이 또 하나의 기술의 벽을 넘는 순간이었고 당연한 또 하나의 나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이었다. 지금은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나를 꿈꾸고 있다.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세계최초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나를 -

선임 연구원 강 구 호

인재와 첨단기술의

일본 기술의 장벽을 넘어 수퍼 VTR을 독자 개발한 수퍼 VTR 개발팀

최초의 광학수정렌즈, 광학 전동렌즈, 광학 연동부, 광학 변속기, 광학 구동장치

◇6공의 강제징집실태와 우리의 대응

합법성 가장한 '신종' 녹화사업

장기집권 음모속에 활동가들 사회와 격리 의도 군대문제, 개인고민 아니라 조직적으로 풀어야 할 때

‘앞으로 군에 입대하게 될 전국의 애국청년여러분! 군대에서 고통에 찬 신음을 하고 계신 애국군인 여러분! 정년 기만적 헌정권의 합법을 병자한 부당한 장기집권에서 철저히 개인적인 민간생활의 녹화사업들이 인건급에 살고자하는 권리마저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은 학생운동을 하다가 지난해 월에 강제징집당한 최홍기(군산대·제어계측)이방이 지난해15일 발표한 양심선언문중의 일부문이다. 5공화국때 학생운동가들에 대한 사찰→검거→강제징집→녹화사업, 프락치강요→의문사로 발전되는 것이 학생운동탄압의 일련인 강제징집의 경로였다. 당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학생들을 시위현장에서 검거하는 즉시 영장을 발부하여 징집하는 모습은 군을 이용한 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한국에 있어서 ‘군’이라는 것은 그 탄생부터 민족과 민중의 대의에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민중들의 투쟁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기위해, 미군정정은 ‘미국의 용병’키우기에 급급했다. 초기 군장교들이 대다수 일본군출신장교였던 것만 봐도 드러난다. 대한민국

군의 성격은 여순사건과 제주항쟁을 거치면서 민족적 성향을 가진 군인은 군대내에서 거의 배제돼 버리면서 군이된다. 5·16쿠데타의 원동력이 군이었으며, 전두환·노태우정권의 토대로 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었다. 군이라는 것이 ‘빨갱이를 때려잡기 위해서’ 철저한 반공논리와 계급을 토대로 존재한다면, 이미 통일이 민족민주운동세력뿐 아니라 정권속에서도 제기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군의 그러한 존재논리는 이미 부정되어버린 것이다. 독재권력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군이 아니라 앞으로는 민족·민중을 위해서 복무하는 민족자주군대로서의 위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담과 바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은 민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80년 광주항쟁때 시민학살을 위해서 동원된 군을 바라보지않더라도, ‘대간첩작전’에 투입돼야할 전투경찰(전경)이 시위현장에 투입돼 있는 것은 이제 거의 낯익은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강제징집철폐대책위’에서 주장하는 6공들이 행해지는 군에 의한 민운 세력탄압이라는 강제징집의

모습을 보면, 병역법 제103조 1항 ‘집시법의 경우 하지만 실행2년이상 면제’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실행2년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가 전체의 10%이므로 범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대부분인 90%는 집시법등으로 1년6개월정도 형을 살다가 출소 직전에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감된 경우 1년6개월의 형과 30개월의 군복무기간을 합쳐 4년이상을 사회와 격리된 채 특수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

다. 5공화국때와 마찬가지로 6공화국에서도 강제징집되었을 경우, 군대내 기무사를 통한 학생운동탄압행태가 자행된다. 강제징집대상자에게 같이 활동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한다든지, 반공서적을 주어서 독후감을 계속 쓰게 한다는 것이다. 최홍기이방이 양심선언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것을 거부할 경우 “빨갱이는 다 죽여야 한다”며 집단 구타하거나 “사회에서도 잘도 피해



다. 5공화국때와 마찬가지로 6공화국에서도 강제징집되었을 경우, 군대내 기무사를 통한 학생운동탄압행태가 자행된다. 강제징집대상자에게 같이 활동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한다든지, 반공서적을 주어서 독후감을 계속 쓰게 한다는 것이다. 최홍기이방이 양심선언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것을 거부할 경우 “빨갱이는 다 죽여야 한다”며 집단 구타하거나 “사회에서도 잘도 피해

다. 5공화국때와 마찬가지로 6공화국에서도 강제징집되었을 경우, 군대내 기무사를 통한 학생운동탄압행태가 자행된다. 강제징집대상자에게 같이 활동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고 한다든지, 반공서적을 주어서 독후감을 계속 쓰게 한다는 것이다. 최홍기이방이 양심선언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것을 거부할 경우 “빨갱이는 다 죽여야 한다”며 집단 구타하거나 “사회에서도 잘도 피해

없었다’고 협박한다고 한다. 또한, 6공은 5공에 비해 ‘국보법 수감자가 2배나 넘듯이 걸로는 6·29를 통한 민주화를 선언했지만 민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강도는 5공을 능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생운동가에만 국한되었던 5공 시절 강제징집대상자에 비해 6공의 강제징집대상은 학생뿐 아니라 특별보호 노동자, 민주적인 ROTC, RNTC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대상결정에 대해 ‘강제징집철폐대책위’김지희씨는 “92.3년 대외전기를 앞두고 대중간부나 대중활동가등 전민적인 민주세력을 감옥이나 군이라는 특수사회에 묶어놓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학생의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병역법’을 이용하여 탄압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 병역특별부문의 경우에는 회사측에 의해서 해고된 경우 즉시 군복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합법적인 특수조항이 있다. 병역특별부문의 방위산업체에서 5년간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면제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기간에 회사측은 군복무와 같은 성격을 요구해 저임금·전업·특근등 장시간노동을 요구한다. 여기서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동운동을 할 경우 회사측은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시킨다. 또한 노동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맞게(?) 군복무에 임해야하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특별보호기간은 고려되지않은 채 군복무30개월을 다해야하는 것이다. 여기서 해고노동자가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란 점에서 회사측과 군, 정부당국과 밀착된



△강제 징집은 5공·6공 모두 정권의 안정을 위한 기도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 89년 본교 강제징집자로 최성민(수교·81) 열사의 추모비 제막식중)

노동운동탄압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OTC의 경우에는 대학생활에서부터 군대내 결사를 몸에 익히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문제를 조금이라도 제기하면 ‘최성불량’ ‘군사학기부자’로 적혀 제적당하고 곧 징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 ROTC의 경우 ‘적성불량’으로 제적되었을 경우 졸업후 군대로 가게되고, ‘군사학기부자’는 제적후 그해 현역입영대상자로 처리된다는 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렇게 ‘군’이라는 것이 강제징집이라는 형태로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실체로 부상하고 있을 때, 청년들에게 다가오는 군의 의미란 자신의 공부와 사회진출에 방해되는 3년의 기간으로만 인식되고 있지, 이러한 군의 조직적 탄압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이제, 92.3년 대전환기와 평화군 축분위에서 청년학생들은 군대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하는가 알아 보자.

지금 학생운동가에게 가해지는 징집의 문제는 개인적으로건더러 끝나서는 안된다. 뚜렷한 대책없이 활동공간을 떠나서 군에 간다는 것은 군이 갖는 특수성으로인한 조직적 탄압에 대응해내기 어려운 것이다. 합법적 강제징집이 갖는 탄압적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직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강제징집철폐대책위’에서는 이러한 군의 비민주성을 선전작업을 통해 알려내고, 징집대상자를 조직화내 강제징집철폐를 위한 전담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입영문제에 대한 개인적 고민을 털어버리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때이다. (사회부)

‘강제징집철폐를 위한 대책위’ 실무간사 김인중씨를 만나

민족민주운동의 청년세력에게 가해지는 강제징집의 실상과 군민주화를 위한 대책을 알아보기위해 ‘강제징집철폐를 위한 대책위’ 실무간사 김인중씨를 만나보았다.

△강제징집대책위에서 하는 일은

=무엇보다 6공화국아래 1천4백 강제징집대상자에 대한 인권보조와 강제징집철폐투쟁, 반독재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강제징집대상자를 파악하여, 이들과 우리나라 군의 성격과 강제징집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강제징집 철폐투쟁을 위한 조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5공화국과 6공화국의 강제징집 형태의 차이는

=5공화국은 시위현장에서 연행하여 곧바로 징집하는 무단·불법적인 성격을 띠고 행해졌지요. 하지만 6공에서는 병역법을 ‘집시법 2년이상만 면제’라고 개정해놓고 합법적으로 강제징집을 실시합니다. 왜냐하면 집시법일 경우 대부분이 1년6개월정도 형을 받으니, 형을 다살고도 곧바로 군에 징집되어 약

5년동안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게 돼요. 또한 대상자도 5공에 비해 대량히 광범위해졌습니다. 92.3년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학생운동계 뿐 아니라, 노동계, 민주적인 ROTC, RNTC 등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학생운동에 가해지는 강제징집의 형태는

=6공은 기무사를 통하여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사람까지 다 파악하

를 남원전군처의 의문사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요즘을 전경들의 양심선언이 나오고있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요즘과 같은 시국에선 군인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군대내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 대응보다 ‘조직적대응’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군민주화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출소전 영장을 발부받고도 군대에 가지않았다면 일종의 ‘도발이’ 인데요. 지금의 심정과 앞으로의 결의는

=심정적 두려움과 동요는 전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군대에 가지않는 것은 이제 ‘기피’가 아니라 ‘거부’로 받아들여져야합니다.

모든 문제를 대책위에서 조직적으로 풀고, 사회민주화운동에 복부

진다고 합니다.

△예비대상자들에게 하고픈 말은

=징집문제는 개인적 고민으로 풀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결함하여 군민주화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전환시키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양승희 기자)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선은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었죠. 기본적인 임금도 순탄하게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서 이미 전세계에 손을 뻗고 있던 미국독점자본이 막강한 힘으로 우리나라의 조그만 영화시장마저 아까이름 파먹게 된다면 숨구멍을 막아버린다는 불안감으로 일단 나서게 된 것입니다”

88년 UIP(United International Pictures)작배 분적화되면서 피켓팅 등 앞장서서 저지투쟁을 해온

막강한 힘으로 우리 영화 시장을 파먹게 된다면... 불안감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한국영화 조감독협의회(회장=허동우)의 최진식(교육국장)씨를 만나 보았다.

88년 서울올림픽을 틈타 UIP의 첫 적배영화 ‘위험한 경사’가 코리야, 신영극장에서 개봉될 당시 영화계인사 2백여명은 극장 앞에서 적배저지 항의시위를 벌였다.

“처음에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설마할까 했던것이 막상 UIP적배영화화 서울 시내 극장에서 상영되자 피해감이 피부에 와닿았고 기만적이었고 당혹스러웠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지투쟁은 미국과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광우항쟁자료와 미문화원 점거농

성 등 미국의 식민통치행위를 폭로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렇듯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고 미국의 본질을 막연하게나마 파악하게 되었다는 최진식씨는 특히 UIP저지투쟁을 통해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을 실감하게 되었다고 한다.

“점점 불락해가는 자본주의의 말기적 중세로 이윤수탈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수탈을 밀미로 증소자본으로 구성돼 있는 영화시장을 거둬먹기 미국과 이에 영화시장을 팔아먹고 만 매관정부에게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투쟁의 뜻을 밝혔다.

UIP적배저지투쟁의 가장 큰 여울목이 되었던 지난해 서울 시내 개봉관에서의 ‘사랑과 영혼’상영에 대해 ‘민중영화 쫓겨우자들의 파멸을 돕고 침묵시위를 했으며, 극장앞에서 삭발을 하는 등 우리 3천 영화인은 목청껏 소리치고 철구하였지만 이미 미국영화, 미제문화에 길들여진 관객들은 몇몇하게 우리를 지나쳐 버렸습니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투쟁으로 인해 기존 분열해 있던 영화인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하나된 힘으로 연일 투쟁을 통해 조직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다며 진영화인들이 연대하여 저지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당시 경제적 위형이라는 위기의식아래 ‘극장주 타도’에 매몰되었던 것을 반성하며 ‘현실을 반영하는 민족영화를 만들어 적배영화에 대항하고, 좋은 영화의 존엄을 방해하는 현행 영화업법을 철폐



최진식씨

한국영화 조감독협의회

하고 영화진흥법을 개정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라고 굳은 결의를 나타낸다.

UIP적배로 기존의 유관·폐적 인 영화는 사라지고 오히려 좋은 영화를 만들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시장자체가 미국에 넘어간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영화를 만들수 있겠습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영화의 존엄을 어떻게 하는 UIP적배를 반대하는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라는 UIP저지 투쟁의 의의를 한층 드높인다.

전국극장의 완전한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는 UIP적배는 한국의 영화인들로 하여금 영화창작기반의 상실, 제작편수의 격감, 생계불안 등의 위협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미국의 음모적 침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한국영화를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UIP저지투쟁을 힘차게 해나갈 것이며, 민족영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재차 결의한다. (이경애 기자)

POSCO메세지 ⑤ - 추제편



지금은 장미 한송이를 가꿀때

5월, 불타는 젊음의 계절 조목이 있고 장미가 더욱 돋보이는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젊음을 위해 태어난 축제의 한마당— 이말때일수록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남을 이해하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젊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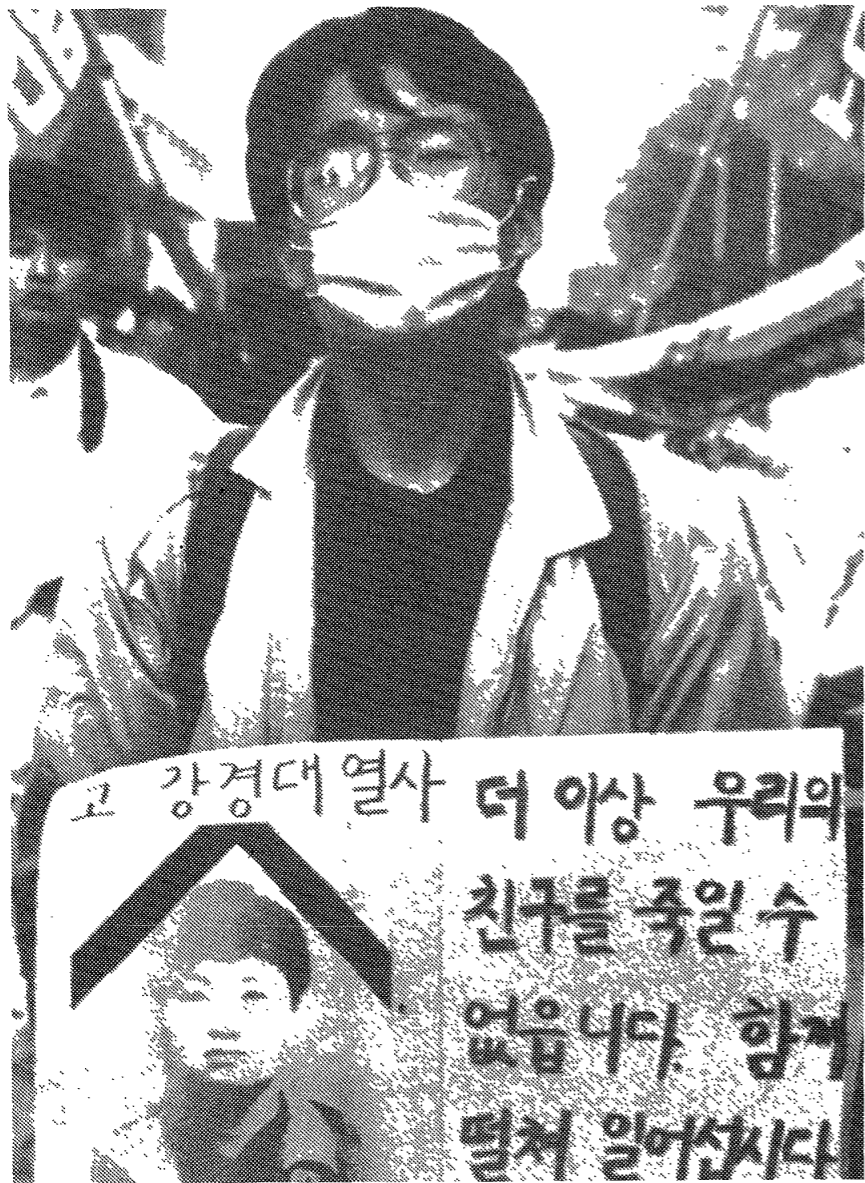
인생의 커다란 의미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생각뿐이던 그녀를 용기있게 만날 수 있는 자리 장미가 있고 사랑이 있는 축제의 계절 그곳에 당신을 위한 자리 하나를 비워두겠습니다.

지금은 한송이 장미를 소중히 가꿀 때입니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열사·여·죽음을 넘어 산·자·들을 부활케 하라



고 강경대 열사 더 이상 우리의 친구를 죽일 수 없습니다. 함께 떨쳐 일어섭시다.

☒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열사는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뒤에 있는 우리들이 그들을 부활시켜야만 한다.



☒ 물뿔물뿔의 용사들

최후탄으로 우리를 해산시키고 물대포로 쓸어내리려 한다해도 우리는 끝내 이 자리를 지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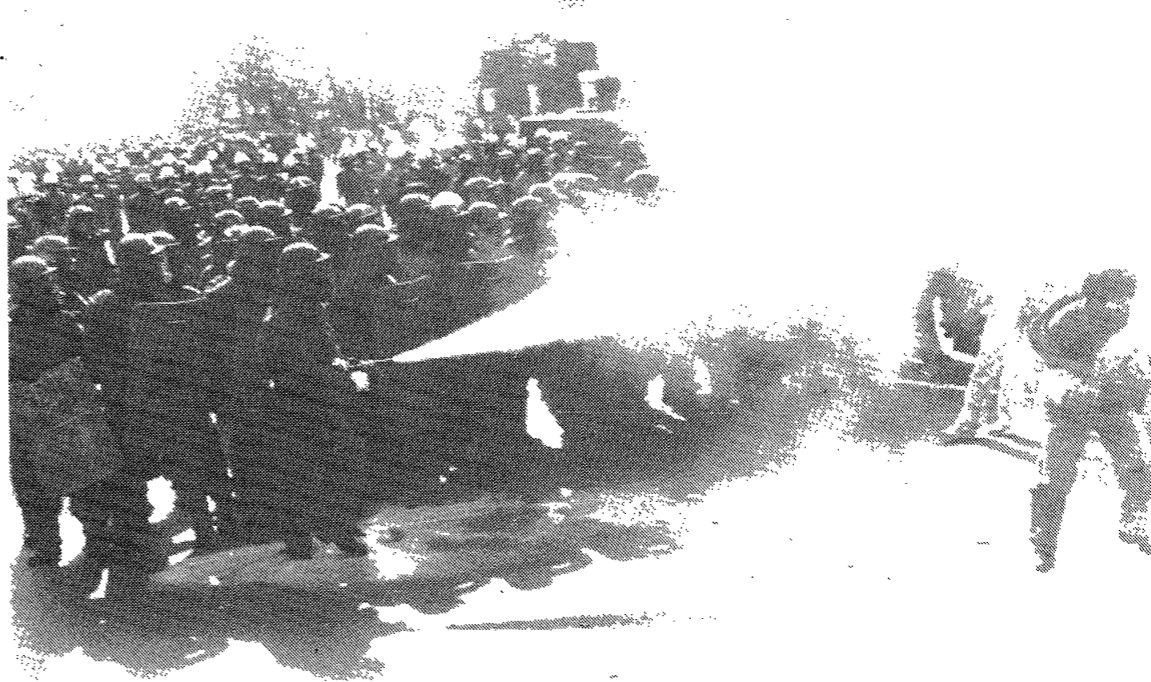
5·19주기를 맞아 중로3가에서 있었던 가두투쟁에서 한 노부부가 풍물패와 함께 어울리고 있다.

☒ 땀자루를 씻어하는 땀중의 춤



5월 4일 처음산인 저들의 최신형 무기 앞에선 단련된 방어로, '위대한' '위대한' '개별'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

☒ 이런 것은 처음이지?



강경대 열사를 기리며

모닥불이 타오르는 영안실 앞. 향불처럼 하늘로 오르는 연기결 사이로 열사의 죽음을 지키는 동지들 우렁찬 노래소리 울리는, 새벽하늘, 별빛은 빛나건만, 철문 건너 도사리는 검은 투구들. 모닥불 너머로 보이지 않는 열사의 냉동된 주검을 마음으로 그려보면.

열사여 그곳은 얼마나 추운가 말이라도 건넌 뱃 하나 없는 암흑 속 시퍼렇게 시퍼렇게 눈뿔 벌처럼 살아 있지 않는가 원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부모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잊지 못한 반도 남단의 통일열망으로 열사여, 그대 문을 열어달라 나 이렇게 살아 싸우고 있다. 냉동된 역사의 문을 열어 나 이렇게 살아 싸우고 있다. 목놓아 벌떡 일어서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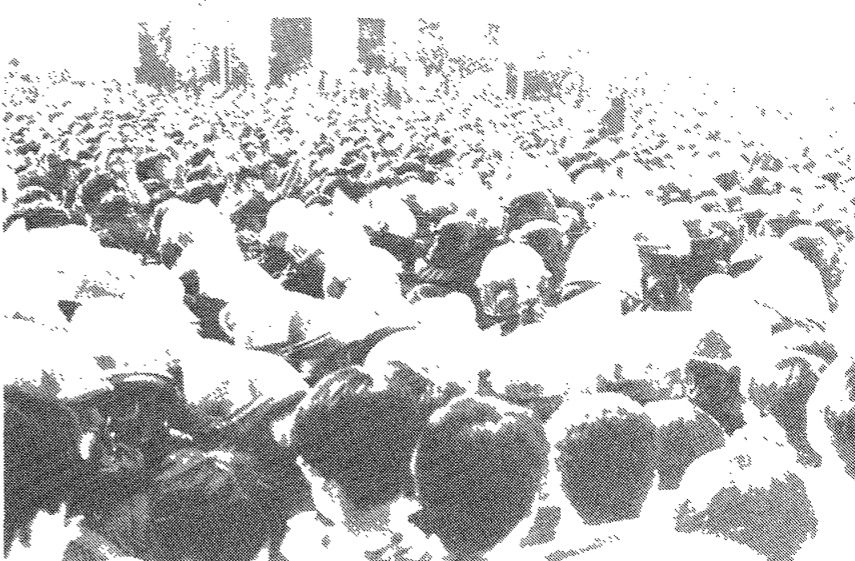
열사여 나는 다짐한다 물아치는 새벽바람에 탁탁 흩어지는 불씨에 놀라 깨어 다짐한다 열사의 죽음은 더 이상 영안실의 죽음, 더 이상 냉동된 역사의 죽음이 아니라 오월을 일어 세우는 죽음 작위와 분단을 갈아엎는 죽음 오월의 거리에서 맹세의 것발로 필력이는 해방부활의 죽음이 되게 할 것이라고

모닥불이 번져 올라 불씨가 하늘로 올라 바람 찬 새벽하늘 열사의 주검을 지키고 선 사수대 머리 위로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화살처럼 검은 투구에 내리 박힌다 조국의 가슴에 빛난다.

이준희 <동국문화회>

☒ 포위된 전경들

그래,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소수인 것이다. 4천만 민중은 그래서 막강한 것이고 또 뭉쳐야 하는 것이다.



☒ 벗이어 고이 가소서

지난 5월12일 고 김기철씨의 운구행렬에 민가협 유족회 회원들이 열사의 사진을 들고 뒤따르고 있다.

☒ 길을 비키란 말이다

지난 5월3일 교내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평화행진을 시도하려다 저지당하는 우리 화우들.



열린글터

본사 어른매체부는 동양의 모든 주제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글, 만화, 사진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실리는 원고에 대해 소정의 고료도 지급합니다. 각 단에 모니터 요원(편집부장)을 통하여나 신문사로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 남음으로 인간다운 세상 앞당겨

10개월의 수감생활을 마감한 지 1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출소 후 며칠은 마치 10개월의 세월만큼이나 내게는 긴 세월이었다. 의정부에서 집으로 두 통치의 보통이를 들고 지하철 의자에 깊숙히 앉아서, 학생 차림의 사람만 봐도 오랜 벗이 나 된 듯이 악수를 청하고 웃음을 보내고 싶을 만큼 사람들은 내게 그렇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10개월의 수감생활을 마감한 지 10여일이 지났다. 그러나 출소 후 며칠은 마치 10개월의 세월만큼이나 내게는 긴 세월이었다. 의정부에서 집으로 두 통치의 보통이를 들고 지하철 의자에 깊숙히 앉아서, 학생 차림의 사람만 봐도 오랜 벗이 나 된 듯이 악수를 청하고 웃음을 보내고 싶을 만큼 사람들은 내게 그렇게 확대되어 나타났다.

정치범사들은 중부식을 했다. 앞방부터 끝방까지 벽 사이에서 두고 창살에 매달려 복도를 바라보며 1년을 돌아보며 노래 한곡씩을 부르는 시간인 것이다. 동자들이 슬피하고 힘찬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과는 달리 나는 아직까지도 경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이 몇개를 나열하는 식으로 나의 이야기를 마쳤다.

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생활이었다. 강경대군 타살사건 이후 계속 이따를 분신 항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죽어야 할 이들은 살아있고 소중한 우리의 젊음들이 죽어 가는 이 사회 현실이...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한다. 또한 독재 정권 아래서 우리는 죽음과 너무 가까이 있다. 그러나, 그러나 살아남자. 그냥 살아남음이 아닌 치열하게 살아남자. 멧심내지 않은 모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장구수 어른들을 역사의 뒤안길에 아련한 추억에 새겨두면서 말이다.

김인영 (반미구국전선 구술자·영문과 87)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면 장구수 어른들이 떠오르고 그들의 진한 삶에 숙연해지고 힘을 얻었던 10개월의 생활이었다.

90년 8-27 서울 구치소 폭력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 위치를 떠나서 느껴야 했던 인간에 대한 환멸감, 좌절한 구두축으로 맨살을 짓밟고 20여명의 교도관에 의해 속속 차림으로 질질 끌려나가 갖은 모욕과 구타를 당하고, 6월간의 단식과 단수로 기진맥진해 있을 때 죽음을 너무나 쉽게 우리 곁에 있음을 느꼈 수 있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친구들은 언제고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70년 박정권시대 사상 전향 반을 꾸러져 살인적인 전향 공

작을 당하면서 그 한 장의 종이엔 손도장 찍기를 거부하고 30-40년씩 계속 0.7평의 독방에서 생활하고 계신 그분들에게 10여일간에 걸친 폭력 사태는 장난짓에 불과했는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의 대접을 거부당하고 처치곤란한 물건같이 짐작으로 취급받으며, 흑과 백의 논리만이 무성한 이 사회와 나의 범정에서의 발언이 곧 내가 감당해야 할 감옥생활로 이어 진다는 것은 내게 크나큰 무게로 다가왔다.

능장 행정처리로 등록금환불 늦어져 정투와 더불어 학자투에 주력해야

등록금 환상이 타겟된 한 달 반.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우리는 승리했다고 기뻐하였다. '학년기준을 적용하여 16% 인상'하고, '10억원의 복지 기금을 조성하여 학내 복지문제를 정상화'하고, '도서관 등 복원문제를 해결'... 그리고 신입생 4%, 재학생 2%의 초과 납부액은 환불해 주기로 했다. 많은 학우들이 기뻐하며 환불을 기다렸다. 그런데 4월 중순이던 편다, 5월 초순이던 편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한달 반이 넘는 지금까지도 환불이 되고 있지 못하다. 왜 이렇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첫번째는 학교측의 무성의에 기인한다 하겠다. 현재의 시국은 '살인정권 노태우 정권의

퇴진과 민자당 해체'를 위한 청년학도의 전면적 투쟁기이며, 동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학생회는 눈코 뜰새없는 투쟁일정과 싸움속에서 바쁘고 힘찬 메일메일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편승하여 학교당국은 '세 위원회 구조를 정상화'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과정위원회를 전면 파기하려는 작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등록금 환불이 늦추어지고 있는 이유인 것 같다. 그동안 학자투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의 모습이 또다시 지금의 시기속에서 나타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행정체계의 문제점이다. 우리 학교는 서울과 경주 두 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경주 캠퍼스의 경우 행정의 자주화

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경주 부총장 선거에서도 경주 캠퍼스 자주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의 예결산 조차도 서울에서 도맡아 하고 있다. 이러하기에 경주 학생들의 환불에 대한 처리도 서울 경리과에서 다 하고 있다.

세번째는 학생회가 투쟁의 일정이 바쁜 관계로 합의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들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비상사태라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등록금 환불에 대하여 학생회 체계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 행정에 대해서 이의 시행은 강제해 내고 학우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이다.

이동희 (경상대학 무역학과)

5·13민자당사를 점거

남은 후배에게 VS 가신 선배에게

하는데 있어서 주저하여서는 안된다. 통일단결의 사상을 실현하는 길 그것을 실천함을 주저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야말로 자랑찬 조국의 미래를 짊어주고 나갈 위대한 역사임을 가슴 절절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나의 소식을 듣고 결코 한숨쉬지 마라. 그럴 시간이 없다.

조국의 운명이 나의 운명임을 기쁘게 느끼며

조국의 현실은 이토록 슬프고 확신과 희망의 약속은 원하고 있다. 지금 나는 '용활'이행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가득차 있다. 할말은 많지만 너무 많으므로 다음의 만남을 기약하는 극적 효과를 내기위하여 이만 줄이겠다. 반미 구국 항전 47. 5. 12 -치건-

※주원인 '구'는 내가 올때까지 너에게 부탁한다.

류치건 (사범대 역사교육과)

5·9때 찢어진 머리감싸고 거리지키다 또 부상

김대정 학형의 완쾌를 힘찬 투쟁으로

경대형을 죽이고 오월의 거리에서 꽃다운 청년들을 쓰러져 나가게 만든 노태우정권은 여전히 강경대용이라는 쇠피프를 휘두르며 달려오나니. 지난 5월9일 민자당 해체와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해 동양의 학우들은 손뼉을 북을 때리고 출정식을 기해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동대문 앞에서 벌어진 가두집회에서 한 시민은 분노에 찬 목소리를 퍼부어 대고, 어느덧 거리를 질주하는 청년학도들과 "애국시인 일어났다. 노태우는 각오하라"를 부르짖으며, 이 땅의 민중형제들은 시청으로 청와대로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로에서 퍼포그를 앞세운 정권의 하수인들은 숨어들어는 민중의 분노와 함성을 막기 위해 어두운 밤하늘에 불꽃을 수놓으며 최루탄으로 뿌연 종로를 만들었습니다. 매캐한 최루가스 속에서 아랑곳 하지 않고 대열의 선봉에서 진격투쟁을 벌이던 우리 김대정학형은 8시30분경 백골단이 던진 거친 돌에 정수리를 맞는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를 휴지로 감싸고 계속적인 진격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후 9시30분경 울지로서서 대열침탈을 기도하는 백골단에 맞서다 또 다시 백골단이 던진 돌에 맞아 머리가 함몰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폭력정권, 살인정권의 전와성이 어느덧 우리들의 옆자리에

5·13민자당사를 점거

남은 후배에게 VS 가신 선배에게

서러운 식민지 땅.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는 군사적인 지휘관이 우리 민족의 손에 있습니까. 왜 우리들의 땅 용산구가 캘리포니아주로 탈바꿈 되어야 합니까. 민족의 정기가 곳곳에 서린 이 땅에 노태우라는 놈들의 핵무기들이 이 땅의 꺾이지 않을 높은 기개를 꺾어놓고 있습니까. 민족의 자주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서러운 땅. 자랑찬 청년학도.

형을 구하는 길은 사심없이 역사를 사는 것

서러운 땅에 태어난 두 다리 를 굳게 붙이고 서는 청년학생, 항상 자기가 조국의 완전한 자주-민중-통일을 앞당기려는 청년학생이여! 자랑스러워했던 형, 어찌까지만 해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묵묵하게 살아갔던 형, 이제 치경형의 특목합이 나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인다. 오늘 노태우의 소굴로 들어가는 출도 모르고, '형! 애석상 갔다가 올때 맛있는 것 많이 사와라' 하고 절망이 이 어기했던 우리들을 생각하면 굳은 애국의 열정으로 손 한번 못 잡아보고 보낸 것이 못내

현재수 (사범대 역사교육과)

5·9때 찢어진 머리감싸고 거리지키다 또 부상

김대정 학형의 완쾌를 힘찬 투쟁으로

노태우정권의 탄압에 맞선 민중운동정권의 가열찬 투쟁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체제속에서 경주캠퍼스 투쟁의 교양과 5월투쟁을 힘차게 밀어내기 위해 중앙운동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한시적 투쟁체로서 5월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힘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5월투쟁위원회는 91년 4월말까지의 투쟁들을 평가, 비판하면서 현재의 학생운동 전체 임무를 크게

1. 선도적 정치투쟁의 수행
2. 민중단체 지원
3. 진보적 학문, 이론, 문화의 연구와 전파
4. 민주주의적 활동가 배출을 고민하며 지금까지 투쟁들을 가열차게 이어 내왔습니다. 투쟁속에서 많은 미숙함이 보여졌지만 1만 진시들의 따뜻한 비판과 애정어린 동지애로 5·1일 May-day 집회 시수로 부터 계속 힘있는 1만 동국의 단결투쟁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정렬 (상경대 경제학과)

사람의 꽃 사람의 큰

해태리베나 꽃다발 축제

♥응모기간: '91. 5. 5 ~ '91. 5. 24
누군가에게 꽃을 주고 싶으세요?
누군가로부터 꽃을 받고 싶으세요?
리베나군이 당신의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축제 1
리베나군 속에 1매씩 들어있는 꽃그림 스티커를 리베나 라벨이 그려진 스티커를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아름다운 꽃다발을 보내드립니다. (20개 이내의 사진과 받은 사람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꽃과 사연을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달은 읍면지역 이상만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끼리, 축제 2
선물 1: 리베나군 1개
선물 2: 리베나군 2개
선물 3: 리베나군 3개
리베나군 속에 1매씩 들어있는 꽃그림 스티커를 5월의 꽃인 장미꽃이 그려진 스티커를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 주시면, 원하는 선물 1봉을 택으로 보내드립니다. (위 선물중 1가지를 골라 우편엽서에 적어주세요.)

■보내실: 서울·영등포구 영등동5가86 해태제과(주)해태리베나본사본대지점 담당자
●희망소비자가격: ₩ 500
고소한 이몽드가 아삭아삭-유지방 8%의 고급 바닐라 아이스크림. 새로운 이스크림 해태 리베나.

“장미꽃 한송이는 ONLY YOU?”

그대를 만난지 3년째
남들은 흔히 커플이라고도 하지만 정작 변변한
고백 한번 들은적 없는 그저 그런 사이...
내게 마음이 없는 걸까?
아니면 성격이 무뎠을까?
그러면 그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다.
어느날 부스스거리며 잠바 안주머니에서 꺼내는 게
바로 장미꽃 한송이가 아닌가!
“누가 장미꽃 한송이는 Only You라고 그러길래...”
듣고보니 제법 맛있는 고백이었다.
장미꽃 한송이를 주며 Only You?

자주적·대중화된 조직건설로 문예운동 펼칠때

올바른 문화운동을 위해

- ... 6회에 걸친 장르별 시리즈를 총평을 마치며...
- ...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동양의 문예운동 현실...
- ...을 고찰해 보고 올바른 문예운동과 조직건설의...
-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으나 다소 미흡함이...
- ...남는글이 된것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함...
- ...다. 이후에도 동양 문예운동의 계속적인 관...
- ...심과 조연을 부탁한다. (편집자)...

1. 들어가는 말

기간 6회에 걸쳐 동양내의 장르별 문예운동(이하 문예)운동의 발전경로, 현재적 위치 이후 전망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고찰을 해보았고 마지막 총평에서는 기간 학내문예운동의 과정속에서 넓은 관점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우리가 견지해야 할 문예 실천방도에 대하여 언급하려 한다. 시대에 민감하고 조국과 민중의 운명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한 것은 문예운동 자체이며 존재방식이다. 청년학생인 문예대중은 생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입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견해를 가지고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투쟁, 온갖 넓고 푸른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벌어지는 세세대 인간들의 생활을 진상하고 이끌어형상화 함으로써 문예를 인간 중심으로 만들며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에 맞게 창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동체,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사업은 단 몇 번의 활동과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문예대중을 자주화하는 작업은 중·장기적 계획과 방법을 대중의 실정에 맞게 확고히 틀어쥐며 대중 성장의 순차성에 맞게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예대중은 창작을 중심으로 한 단위 혁신이 필요하고 현재의 단위들을 자주적 존재방식으로 전

환시켜야 한다. 셋째, 실천에 있어서의 튼튼한 주체를 세워야 한다. 문예운동의 '방편'의 문제는 모든 문예활동방식이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창작을 할기 위한 방법은 대중으로부터 나오고 대중이 결정한다. 이에 활동가는 지도, 배려자이면서 동반자이기도 하다.



◇문예운동은 '대중'속에서 함께 해야 한다

2. 문예 대중화의 출발

1) 대중화
문예조직은 대중의 것이어야 한다. 대중의 문예적 자주성을 발전시키고 실현하여 이를 구국운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직 동원시켜 대중을 힘있게 이끌고 가는 존재, 주인으로 만든다.

2) 자주화
대중은 문예의 주인이며 주인의 지위를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문예는 운동의 하나이기 이전에 대중의 삶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문예운동은 대중의 삶의 한 영역을 조직화해내는 데 의의를 가지기에 평생사업이 되어야 하고 또한 전 사회적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문예대중조직 단위들은 문예대중의 자주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며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가를 중심으로 사고하여야 한다.

3. 문예조직 건설의 원칙

첫째, 문예의 주인은 대중이라는 구체적인 문예사상을 튼튼히 세워 한 사람이 열 사람으로, 열 사람이 백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사상에서의 주체를 세운다.

글 쓰는 차례

1. 문화의 문제점 고찰
2. 문학
3. 노래
4. 풍물
5. 미술
6. 민족극
7. 총평

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문화부 산하에 문예패를 중심으로 문화부의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문예일꾼들의 자주성을 질곡에 빠뜨리는 오류를 범해왔다. 문화부의 역할은 각 단위 성원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요구들을 집중시키고 올바르게 지도해내야 하는 것과 (즉, 생활운동 전개) 소모임을 지원하고 다종다기한 소모임의 건설을 도와

고치고 있다. 그 예로 문예패는 학기초가 되면 신입회원을 두고 나름대로 활동하지만 여름 방학만 지나면 되면 거의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저학번들만 패를 이끌어가는데 일상화가 되었다. 이것은 풍부한 자기 내용의 결핍과 문예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연합체 건설의 강요로 더 많은 전문적인 내용들이 각 단위 문예일꾼들에게 돌아간다. 한 때 연합 조직에서는 패의 명확한 위상정립과 단위와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풍부한 자기내용을 갖는 일에 주력해야 하며 흐트러진 조직을 시급히 복원하여 각 단위 주제를 튼튼하게 융합시켜야 한다. 그 밖에 각 단위에 있는 노래, 민화, 연극, 연극패 등은 다른 파나 동아리 지역과 연대가 필요하며 학내 장르별 연대조직의 고안

6. 글을 마치며

문예운동의 현 수준과 과제 속에서 인식해야 할 사상에 대해 그리고 건설해야 할 조직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서술을 해 보았다. 내용이 풍부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고민거리와 문제제기를 심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구국운동의 과정속에서 문예로써 변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과 내용 언급이 된

것 같다. 이제는 조직건설이 형식에만 치우쳐 내용을 채우지 못하는 오류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수많은 대중이 문예활동의 내부의 창조로 길로 들어 나가고 있는 현재의 학생문예의 현실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여 그 모든 문예대중이 진정한 문예의 길로 걸어가며 진정한 문예의 주인, 주체로 서야 한다. 문예창조 사업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민족해방운동의 힘있는 전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와 임무가 아닐까 한다.

5. 단위에서의 고민
학우대중들이 고도의 형상적 사유의 무기를 정취하고 문예의 주인,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본요건은 지금에 있어서 자주적 문예대중조직의 강화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투고를 환영합니다

본사 문화부에서는 동대신문 독자 여러분의 시, 소설, 수필 등의 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267-8577(직통) 2194(구내)

천지인의 지혜



김 항 배
(문과대 철학과 교수)

바다위에 떠오르는데 그때 우연히 떠내려 온 나무토막의 구멍에 목이 끼이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한번 사람이 태어났을때 용생스럽게 정진하여 마음을 온전히 밝혀서 다시는 헛되고 피로운 운회에 빠지지 않도록 운명을 다져야 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생물을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기 어렵다. 이는 마치 눈먼 거북이가 뒷면 바위에 머리를 얹고서 천지인의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다. 천지인은 천지인으로서 태어났을 때 이미 선연된 것이다. 즉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도 깨끗해진다'고 하였고 '一切衆生은 보다 여래의 성품을 함양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미 마음을 남김없이 밝힌 大覺者가 어찌 우리를 속이실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본시 갖추어있는 불성을 깨달아 이를 실현하는 일이 있을 뿐인데, 제마음은 정화하려 하지 않고 밖의 사물에만 집착하여 거의 불성을 어둡고 장애롭게 하는 일만을 한다. 이는 완전히 뒤바뀐 일이다.

이 명 증

〈한외과대학 전임강사·동국 한방병원 물리요법과 과장〉
보약이라 하여 값이 고가 이런 무조건 좋은 것으로 믿거나,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아무 보약이나 좋겠거니 여겨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보약이 몸에 좋은 것으로만 알았지 그 부작용이나 특히 운동선수들의 경우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도핑검사에 양성반응으로 걸릴 위험성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마황(麻黃)과 반하(半夏)에는 에페드린(ephedrine)성분이, 마전자(馬錢子)에는 스트리키닌(strychnine), 백굴채(白屈菜)에는 코데인(codain) 등이 함유되어 있어 전탕(煎湯)을 하여도 도핑검사에서 검거하고 있는 성분이 검

출되었음이 1990년 대한한의학회지에 보고된 바 있다. 일반인들도 흔히 복용하는 개소주, 흑염소 등도 관심을 갖게 하는 보약에 속하는데 결코 누구나 건강장생 혹은 경기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의학에서는

되거나 열상상충, 복통 등을 호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운동선수의 보약은 일반 환자의 경우와는 달리 병을 치료하기 보다는 건강한 신체상태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이므로 선수의 체질, 신체상태, 발달부위를 고려하고 계절에 따른 신체변화, 운동종목, 기대하는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약물을 선택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바른 처방에 의한 보약을 복용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신진대사 기능을 향상시켜 주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며, 부신기능의 기능 및 해독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다량의 비타민과 홀론 등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적응에 도움이 되고 지구력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생활속의 민족의학

운동선수와 보약

유류별로 그 성질을 분류하였는데, 개는 따뜻한(溫)편이고 염소는 더운(熱)편에 속하는 까닭에 한방한 절환이나 허약한 체질에 보(補)하고 양기(陽氣)를 도우는 역할로는 삼상(三上) 양생(養生)을 하여도 도핑검사에서 검거하고 있는 성분이 검

스터디월드

해외연수

“대학생들로만 구성되는 해외연수는 스터디월드 뿐입니다”

왜 '스터디월드'가 좋은가?

1. 대학생 해외연수 전국 1위
2. 대학생만을 위한 전문프로그램
3. 대학생들로만 구성
4. 세계 각국 명문대학 및 공인된 연수기관 이용
5. 전 일정 안전한 시설이용
6. 평생유대 회원제도 실시
7. 1억원 해외여행보험 자동가입

* 반드시 대학생만 접수하고 있으나 꼭 학생증을 지참해 주십시오.

스터디월드 해외연수 일정 및 요금표

CODE	상 호 명	일 정	출 발 일	요 금
SW-01	일본 10개국 연수 (5/8)	서울/동경/오사카/교토/나고야/오사카/1서울	7/10, 7/17	₩1,185,000
SW-02	중국 10개국 연수 (5/10)	서울/베이징/톈진/항저우/상하이/칭더/시안/베이징/톈진/항저우/상하이/칭더/시안	7/4, 7/18	₩1,190,000
SW-03	동유럽 10개국 연수 (13/14)	서울/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7/5, 7/16	₩1,687,000
SW-04	유럽 10개국 연수 (13/14)	서울/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7/4, 7/11, 7/18, 7/25	₩2,335,000
SW-05	유럽 10개국 연수 (15/17)	서울/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6/27, 7/4, 7/11, 7/18, 7/25	₩2,730,000
SW-06	유럽 10개국 연수 (A) (21/22)	서울/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7/2, 7/9, 7/16, 7/23	₩3,350,000
SW-07	유럽 10개국 연수 (B) (23/24)	서울/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7/1, 7/8, 7/15, 7/22	₩3,490,000
SW-08	유럽 10개국 연수 (A) (26/27)	서울/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9/11, 7/18	₩3,880,000
SW-09	유럽 10개국 연수 (B) (23/24)	서울/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7/8, 7/22	₩3,485,000
SW-10	EUROCENTRE 지역 및 문화연수 (35/36)	서울/런던/도하/브루셀/파리/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7/6	₩3,735,000
SW-11	OXFORD 지역 및 문화연수 (35/36)	서울/런던/옥스포드/도하/브루셀/파리/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7/13	₩3,850,000
SW-12	캘리포니아대학 및 문화연수 (33/34)	서울/로스앤젤레스/샌디에고/파리/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7/6	₩3,880,000
SW-13	ACEG 지역 연수 (41/42)	서울/런던/사우디/파리/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6/29	₩1,850,000
SW-14	미국 10개국 연수 (17/18)	서울/뉴욕/워싱턴/로스앤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	7/13, 7/27	₩2,845,000
SW-15	미국 10개국 연수 (17/18)	서울/뉴욕/워싱턴/로스앤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	7/16	₩3,185,000
SW-16	일본 10개국 연수 (18/40)	서울/동경/오사카/교토/나고야/오사카/1서울	8/2(여름휴가), 7/20(여름휴가)	₩3,885,000
SW-17	미국 10개국 연수 (18/40)	서울/뉴욕/워싱턴/로스앤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시애틀/샌프란시스코	6/29(여름휴가), 7/20(여름휴가)	₩3,840,000
SW-18	일본 10개국 연수 (18/40)	서울/동경/오사카/교토/나고야/오사카/1서울	7/6, 7/20	₩3,185,000
SW-19	중국 10개국 연수 (18/40)	서울/베이징/톈진/항저우/상하이/칭더/시안/베이징/톈진/항저우/상하이/칭더/시안	7/22	₩2,885,000
SW-20	유럽 10개국 연수 (14/15)	서울/프랑크푸르트/베를린/파리/런던/마드리드/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7/24	₩3,885,000

어드벤처월드 해외연수 일정 및 요금표

1. 유럽배낭 : 65만원 ~ 82만원
2. 태국배낭 : 42만원
3. 일본배낭 : 291,360원
4. 태극택킹 : 79만원 ~ 89만원
5. 유럽특급 열차여행 : 169만원
6. 유럽캠핑 : 193만원

기획취재

난항 거듭하는 종정선출 문제

종권싸움에 이사진까지 '불똥'

4개월째 원로회의- 종정추대위간 대립 심화 불교계 혁신만이 종립대학 발전 기대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단이 종단의 최고지도자인 종정을 선출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비단 불교계 뿐만 아니라 조계종을 대표하는 유일한 종립대학이기도 한 본교에 종권싸움으로 인한 폐해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85년 민족사학의 웅대한 발전에 있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명실상부한 조계종의 최고 책임자인 종정이 전제교계 차원의 단결된 모습속에서 추대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종립대학인 본교 발전을 위한 거시적·거요적 지원

의 하나된 모습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난항을 거듭하는 종정추대 문제를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계속 난항을 거듭하는 근본원인이 종권싸움에서 기인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이는 단지 교계 문제 뿐만 아니라 민족정신의 올바른 구현을 염원하는 학생·지식인·모교의 10만 동문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과제가 아닐수 없다.

로 불교정화의 한목소리가 아닌가 싶다. 한편 종정추대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 본교 이사진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승려이사진 감사등 11명은 현재 '조용한 가운데 매우 어지러운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 본교 승려 이사진중 범어문중으로는 의현, 광덕, 벽파, 지관, 도원스님이, 덕승문중은 진경, 현성, 정대, 해법, 삼지스님등 각각 5명이며 복원 이사진이 직지사 계열로 독립된 문중을 갖고 있다.

부터 종단을 비롯한 본교 이사진들 간에는 이사장직을 놓고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종정추대와 본교 이사장선거 모두 맞물려 있는 소용돌이 불교계의 모든 문제는 현 총무원장 서의현 스님의 기휘에 향방이 결정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이다.

이성철 종정이 지난 1월9일 로 10년 임기를 마친후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조계종은 자기 종정을 추대하지 못하고 있다.

종정추대는 원로회의의 고유권한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덕승문중에서는 종원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정종원에 의한 종정추대위원회의 권한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

어 있다. 이를 문중별로 굳이 나눠본다면 범어가 10명, 덕승이 5명 그리고 독자적인 문중이 6명으로 원로회의에서 종정을 추대할 경우 범어문중의 성철스님이 재추대될 것이 거의

다. 그러나 현재 본교 이사진의 경우는 종정추대문제가 늦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4월26일 조계종 종립학교위원회가

현재 차기 종정 후보로는 성철 진종정을 추대하려는 덕승문중과 조계종 설립 이래 아직까지 종정을 배출하지 못한 범어문중의 원스님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양대문중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계속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성철 종정이 지난 1월9일 로 10년 임기를 마친후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조계종은 자기 종정을 추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철 종정이 지난 1월9일 로 10년 임기를 마친후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조계종은 자기 종정을 추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성철 종정이 지난 1월9일 로 10년 임기를 마친후 4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조계종은 자기 종정을 추대하지 못하고 있다.



◇제7대 종정선출을 놓고 조계종내에 분열이 일고 있다. 사진은 종정추대위 회의 모습. (사진제공 불교신문사)

나 종법의 유권해석을 차지하고서라도 이러한 상반된 견해가 어느 한두명 승려들의 입에서 나온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심지어는 '출가한지 3년이면 주지 자리를 노린다'는 안타까운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만 봐도 원로회의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볼 수 있다.

현제 침체하게 드러나고 있는 종정추대 문제는 종정추대위원회의에서 추대할 것인지, 아니면 '종정추대위원회'에서 추대할 것인지에 관한 종법 해석상의 문제가 난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제2차 종정추대위원회가 또 한번 유회됨으로써 사실상 종정추대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어·덕승 양대 문중간 이해가 계속 대립되고 있는 것은 원로회의의 구성비율을 보면 쉽게 나타나는데 종원에 규정된 원로회의의 구성비율은 현재21명으로 이중 범어문중이 7명, 덕승문중이 5명, 직지사·통도사문중이 각각 2명, 백양사·승광사가 각각 1명이고 총무원장 의현스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교구에서 3명이 배출되

는 현실이다. 범어·덕승 양문중간에 벌어지고 있는 종정추대 문제는 종단내부의 권력암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해방말고의 본래의 교리자재가 왜색화·독재권력의 시나위에 다름아닌 필연적 결과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계 선진승려 집단의 지적이고 보편 이후 불교계가 지향해야 할 절은 바

현제 침체하게 드러나고 있는 종정추대 문제는 종정추대위원회의에서 추대할 것인지, 아니면 '종정추대위원회'에서 추대할 것인지에 관한 종법 해석상의 문제가 난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제2차 종정추대위원회가 또 한번 유회됨으로써 사실상 종정추대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어·덕승 양대 문중간 이해가 계속 대립되고 있는 것은 원로회의의 구성비율을 보면 쉽게 나타나는데 종원에 규정된 원로회의의 구성비율은 현재21명으로 이중 범어문중이 7명, 덕승문중이 5명, 직지사·통도사문중이 각각 2명, 백양사·승광사가 각각 1명이고 총무원장 의현스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교구에서 3명이 배출되

는 현실이다. 범어·덕승 양문중간에 벌어지고 있는 종정추대 문제는 종단내부의 권력암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해방말고의 본래의 교리자재가 왜색화·독재권력의 시나위에 다름아닌 필연적 결과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계 선진승려 집단의 지적이고 보편 이후 불교계가 지향해야 할 절은 바

는 현실이다. 범어·덕승 양문중간에 벌어지고 있는 종정추대 문제는 종단내부의 권력암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해방말고의 본래의 교리자재가 왜색화·독재권력의 시나위에 다름아닌 필연적 결과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불교계 선진승려 집단의 지적이고 보편 이후 불교계가 지향해야 할 절은 바



우린 너희 편이다. 지난 5월9일 5·9 1주기를 맞아 가두를 매운 학생들에게 한 시인이 요구로 트를 나누어주고 있다. -동대문 운동장에서 (김영란 기자)

본교 학술조사단 중국 불교유적 답사 내달 5일부터 실크로드따라 소련 타시켄트까지

본교(미수학) 박물관장등 6명으로 구성된 실크로드 불교문화유적 학술조사단은 내달 5일부터 7월5일까지 한달간 중국 및 소련일대로 학술조사를 떠난다. 이번 학술조사는 지난 89년 5월에 실시한 바 있는 중국불교문화유적 실크로드 학술조사에 이은 2차조사로 중국측 실크로드인 사막남쪽에서 소련측 실크로드까지 조사함으로써 실크로드상의 모든 불교문화유적을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요 경유지는 북경의 자금성, 태원의 천문대, 낙양의 용문석굴, 서안, 신강의 백자리극석굴, 둔황등을 거쳐 소련의 타시켄트, 사마르칸트, 테르메즈등에 이르며, 특히 천문대 석굴과 사막남쪽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뤄지는 학술조사이다.

이러한 학술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적과 불교문화간 교류의 실상을 밝히고, 실크로드 학술조사와 한국문화의 원류, 교류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술조사단은 문명대, 정병조(국민유리학), 권기중(불교학), 홍영백(사학)교수와 박물관의 박도화, 임영애연구원을 포로 구성되었다. 한편 실크로드불교문화유적 학술조사단은 파키스탄 간다라 학술조사를 통해 실크로드학술기행 '간다라를 가다'2권, 중국 불교문화유적 학술조사를 통해 '중국대륙의문화5권을 펴내'8권으로 이루어졌다.

경주 교생실습 총 3백41명 참가

교생실습 학교배정이 학교교섭으로 바뀐지 두번째인 올해에는 개인동의서 1백32명, 학교교섭 1백82명등 총3백41명으로 확정돼 지난 6일부터 교생실습에 들어갔다. 학교교섭은 경주지역 중·고등학교 18개교에, 동서지역 교생실습자의 모교 및 외부교섭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학술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적과 불교문화간 교류의 실상을 밝히고, 실크로드 학술조사와 한국문화의 원류, 교류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술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적과 불교문화간 교류의 실상을 밝히고, 실크로드 학술조사와 한국문화의 원류, 교류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여려여! 참세상을 안아 오라

불교도주간 선포 수계법회·제등행렬 행사 등 열려

서울캠퍼스 불교도연합회는 오늘(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불교도주간으로 선포하고 '그대들의 청년여려여!' 인간존엄 생명존중의 참세상을 안아오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오늘(15일) 오후2시에는 불상 앞에서 지선스님을 초청해 헌시국과 불교도들의 임종및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회를, 오후4시30분에는 애국열사친도제를 갖는다. 이어 점동식을 시작으로 불교도주간 선포식을 갖고 내일(16일) 오후2시 정각원에서는 제대이사진 오복원대중사를 전세사로 수계대법회가 열린다. 또 오는18일 오후3시부터는 여의도광장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법회를 갖고 여

의도광장에서 조계사로 이어지는 제등행렬을 갖는다. 또한 불교도주간 행사로는 불상주위에서 불교운동사에 관한 사진전이, 16·17양일간 본관 앞에서 시화전이 불교대교래

주관으로 열린다. 한편 경주법구는 부처님 오신날 2535를 봉축법요식등 기념행사를 지난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9일동안 열려온다.

한의대 학생회 사퇴 선언 오는 18일까지 후보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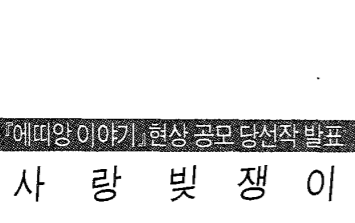
제9대 한의대학생회(회장 임봉수·한희희)가 지난16일 2백여명의 학생이 모인 한의회관 광장에서 사퇴선언을 했다. 이번 사퇴에 대해 임봉수 등은 "학생회가 학교측과 협의했던 91년 1학기동안 경주교수의 서울상경수업부분이 한의학 3학년들과 예과학생회의 거부

로 인해 더이상 이 부분내에 대해 학교측과 싸울수 없다는 결정이 나와 사퇴한다"고 밝혔다. 9대학생회가 사퇴함으로써, 제9대 한의대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13일부터 오는18일까지를 제10대 한의대학생회 임부기간으로 설정하여 후보등록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학술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적과 불교문화간 교류의 실상을 밝히고, 실크로드 학술조사와 한국문화의 원류, 교류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학술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유적과 불교문화간 교류의 실상을 밝히고, 실크로드 학술조사와 한국문화의 원류, 교류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살 여성을 위한 에띠앙 광고제이시⑤



사랑 빛쟁이

『에띠앙이야기』 현상 공모 당선작 발표. *그아인 내게서 박하향이 나는것 같네, 내얼굴이 너무 희어서 주위가 온통 환하게 느껴진다구 *뽀얀 백목련처럼 깨끗해서 웃는 내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다환해진다.

화가 들어볼래? 내 사랑이 시작된 소설같은 이야기들... 학교와 도서관 그리고 화실을 찾아다니며 바쁘게 공부하러 살기하러 힘들었던 시간 때문에 정그리고 우울했던 얼굴, 무거웠던 어깨, 힘없이 움츠러든 가슴... 하지만 이제 활짝 피어났어.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하구, 진짜 멋지고 맑은 영혼으로 하는 그런 사랑도 하게 되겠지. 이제 나도 상큼하고 아찔한 신입생이잖아. 아, 때는 바이프로 나를 위해 다가왔음이 온몸으로 느껴져. 선남선녀의 가슴을 간지럽히는 삼월의 춘풍이 부는 어느 날, 깔끔한 옷차림, 앳된 얼굴, 그리고 해맑은 웃음을 가진 우리가 신입생들은 처음으로 단합화라는 자리에 모두 모이게 되었고, 개성이 뚜렷한 아이들이지만, 금방 어우러져 재잘거리며 배를 잡고 소리내어 자지러질 듯 웃고, 박수치며 입모아 노래도 함께 불렀어. 그 중에서 유별나게도 나의 관심을 살피는 애가 있었어. 키는 전뿔처럼 멀거나 큰 애가 뿔처럼 안경 너머로 나를 힐끔 보다가도 눈만 마주치면 얼굴이 빨그니 상기도는 거야. 단합대회가 끝난후 기숙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 애를 슬그머니 내게 말을 걸어오는데, 난 그 애가 싫지 않았어. 무엇보다도 마음이 풍부해서 사회로 나가고 싶다고 상기도는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그애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처럼 느껴졌어. 그아인 내게서 박하향이 나는 것 같네, 내얼굴이 너무 희어서 주위가 온통 환하게 느껴진다구. 명랑하게 웃는 내 표정이 너무 정다워 보인다구. 난 마음속으로 생각했지, 그애가 한 말은 내 마음을 더욱 밝게 만드는 힘이 될거란 것을. 입학한지 얼마 되지않아 모든 것이 서툴렀고 궁극한 것투성이어서 처음 일 주일은 정신도 없이 보냈어.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난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 그날 우리와 친구들과 함께 새내를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가 나를 들이받았어. 길 옆에 세워 둔 트럭 때문에 급하게 우회전 하려던 택시가 나를 보지 못해서 일어났고, 그순간 마치 테니스 공이 튀어 오르듯 몸통을 봉...복..

애들은 놀람과 동시에 격분했고,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어. 마치 영화록 찍는 것같은 상상 순간에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어. 그리고 정신을 잃고 말았지. 난 이틀 동안 의식을 잃고 있어서 몰랐는데 후에 들은 이야기로 전뿔처럼 멀건 안경 쓴 친구가 의식을 잃은 내 옆에서 이틀 밤을 꼬박 새웠다는데. 첫날은 너무 너무 놀라고 걱정이 되어서 집에 갈수가 없었고 둘째 날엔 내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것 같아서도 걱정하 나를 두고 집에 갈수가 없었는데 내가 눈을 뜬때 그아인 함자처럼 반쯤이 크게 웃었어. 다른 애들이 왔다가 모두 돌아간후에도 그아인 혼자남아서 나를 재미있게 해 주기 위해 무척 애를 쓰는거야. 수줍은 개그맨처럼, 소박하게, 밖에서 뛰어들다가 막 돌아온 꼬마처럼 말그니 상기도는 얼굴로... 그아인 내가 너무 여러 보인다. 뽀얀 백목련처럼 깨끗해서 웃는 내 모습을 보기만해도 마음이 다 환해진다. 그래서 내가 좋네. 그리고 그런 내가 다쳐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구. 빨리 나아서 학교로 다시 돌아와 명랑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단구. 매일 같이 나를 보러오는 그아이는 그동안의 학교 소식과 진행된 강의 내용 그리고 살기 과정의 표현 기법에 관한 것까지 상세히 내게 알려 주었고, 마음에 든다는 노래를 녹음한 테이프도 가져와서 틀어 주었어. 또 화이트 메이에는 장미꽃과 사랑을 잔뜩 시어서 나를 감동하게 만들더라구. 엄만 그아인만 오면 무슨 사윗감 얻은 마냥 좋아하시구, 아이들도 우리더러 눈물나는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들 이라고 불러. 그렇게 방과후를 풍광 내게 바치는 그아이의 시간이 난 정말 너무나도 고마웠지만 이 사랑빛쟁이는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었어. 그저 좋게만 보여주는 내 웃음을 따뜻하게 보여 줄 수 있을뿐.....



경찰 쇠파이프-투석에 부상 잇따라

부상자, 학생회 차원 지원책 절실 말뿐인 시위보장...정권 폭력성 드러내

5·9국민대회와 민주당 중앙당사기수습절차, 본교출신 전경의 양심선언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상·연행자가 속출하고 이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지지운동·기금모으기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해체와 공안특위중식을 위한 범국민연대의대회”가 있었던 지난 9일에는 국문과 3학년 김대준군이 오후 4시30분 중문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다. 팔뚝도 머리를 감싸고 다시 가두시위중, 오후 9시30분 명동에서 또 다시 돌에 맞아 머리를 맞아 이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고 급히 필동중대부속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경대군 처사사건 이후에도 시위현장에서 강제집단·집단구타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열린 국민대회에서 시위하는 학생들

또 물리학과 3학년 송환선군도 눈에 유리과편이 박혔고, 전기공학과 2학년 김원진군은 앞니 5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한편 지난13일 오후12시45분경 정명호(인철4) 군등 본교생 5명이 포함된 구국결사대의 민주당 중앙당사기수습절차에서 정군이 진압경찰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중이다.

또 오후10시 연대에서는 본교 사회학과 다니다 전경이 입대한 이종수군이 양심선언을 했다.

문과, 사회과학 일부학과는 임시총회, 학년토론회등을 열고 학생회비상체제등, 하루차집 등 모금운동 전개, 대국민선전전 등을 준비하고 5월총선거에 적극 참여할것을 결의하고 있다.

국문과학생회는 지난12일부터 명진관(A203)에서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다음날인 13일에는 비상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구성, 22일 동맹휴업, 모금운동·선전전 전개등을 결의하고 현재 비대위체제로 철야농성중이다.

조직화를 벌여나가는것 못지않게 부정연장에서 불행한 사태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대준군은 여섯달의 치료와 몇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종수 일경의 경우도 언제 풀날지 모르는 도피생활을 할 것이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한 개인이나 일가족이 감당 하기엔 무척 부담이 크다. 학생회 사업부에 이같은 것들을 수용해 인권사범부, 복교대책위의 활동에 기대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문과, 정치외교 등에서 벌이고 있는 구국·부상학생들에 대한 지지·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편지교환과 같은 동지적 신뢰감과 학교와 연관을 맺어주는 사업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시위보장은 말뿐인 것이 아니라,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시총회, 학년토론회등을 열고 학생회비상체제등, 하루차집 등 모금운동 전개, 대국민선전전 등을 준비하고 5월총선거에 적극 참여할것을 결의하고 있다.

국문과학생회는 지난12일부터 명진관(A203)에서 농성에 들어간데 이어 다음날인 13일에는 비상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구성, 22일 동맹휴업, 모금운동·선전전 전개등을 결의하고 현재 비대위체제로 철야농성중이다.

사학과학성회도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조직화를 벌여나가는것 못지않게 부정연장에서 불행한 사태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대준군은 여섯달의 치료와 몇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종수 일경의 경우도 언제 풀날지 모르는 도피생활을 할 것이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한 개인이나 일가족이 감당 하기엔 무척 부담이 크다. 학생회 사업부에 이같은 것들을 수용해 인권사범부, 복교대책위의 활동에 기대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문과, 정치외교 등에서 벌이고 있는 구국·부상학생들에 대한 지지·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편지교환과 같은 동지적 신뢰감과 학교와 연관을 맺어주는 사업들을 구체화해야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조직화를 벌여나가는것 못지않게 부정연장에서 불행한 사태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대준군은 여섯달의 치료와 몇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종수 일경의 경우도 언제 풀날지 모르는 도피생활을 할 것이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한 개인이나 일가족이 감당 하기엔 무척 부담이 크다. 학생회 사업부에 이같은 것들을 수용해 인권사범부, 복교대책위의 활동에 기대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문과, 정치외교 등에서 벌이고 있는 구국·부상학생들에 대한 지지·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편지교환과 같은 동지적 신뢰감과 학교와 연관을 맺어주는 사업들을 구체화해야

조직화를 벌여나가는것 못지않게 부정연장에서 불행한 사태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대준군은 여섯달의 치료와 몇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종수 일경의 경우도 언제 풀날지 모르는 도피생활을 할 것이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한 개인이나 일가족이 감당 하기엔 무척 부담이 크다. 학생회 사업부에 이같은 것들을 수용해 인권사범부, 복교대책위의 활동에 기대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문과, 정치외교 등에서 벌이고 있는 구국·부상학생들에 대한 지지·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편지교환과 같은 동지적 신뢰감과 학교와 연관을 맺어주는 사업들을 구체화해야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조직화를 벌여나가는것 못지않게 부정연장에서 불행한 사태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대준군은 여섯달의 치료와 몇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종수 일경의 경우도 언제 풀날지 모르는 도피생활을 할 것이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한 개인이나 일가족이 감당 하기엔 무척 부담이 크다. 학생회 사업부에 이같은 것들을 수용해 인권사범부, 복교대책위의 활동에 기대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문과, 정치외교 등에서 벌이고 있는 구국·부상학생들에 대한 지지·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편지교환과 같은 동지적 신뢰감과 학교와 연관을 맺어주는 사업들을 구체화해야

조직화를 벌여나가는것 못지않게 부정연장에서 불행한 사태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김대준군은 여섯달의 치료와 몇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하고 이종수 일경의 경우도 언제 풀날지 모르는 도피생활을 할 것이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 또한 개인이나 일가족이 감당 하기엔 무척 부담이 크다. 학생회 사업부에 이같은 것들을 수용해 인권사범부, 복교대책위의 활동에 기대를 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문과, 정치외교 등에서 벌이고 있는 구국·부상학생들에 대한 지지·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편지교환과 같은 동지적 신뢰감과 학교와 연관을 맺어주는 사업들을 구체화해야

김기태군 영치금 마련
오는 16일 하루차집

김기태(야간 무역2)군 영치금마련을 위한 하루차집이 내일(16일) 오후1시부터 오후9시까지 동국관(5층로비)에서 야간강좌 무역학과 학생회, 야간강좌 학생들아리 '여명'추위로 열린다.

김군은 지난달 25일 열린학생특별위원회(건준위)발대식 집회도중 화염병투척으로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현대식 제3캠퍼스 추진
개교 85주년 기념식 가져

개교 85주년 기념식이 지난 8일 오전11시 교수, 직원, 학생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발원분봉독, 장기근축사(김기태) 낭독, 총장기념사, 이사장사(김기태) 낭독 순으로 진행됐는데 민병천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학은 인격자를 만드는 교육의 장이지만 어려운 사회현실을 통해 대학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대학의 위상을 밝혔다.

또한 오윤원 이사장은 처사

민주화 탄압 중지 촉구
본교교수 20명 시국성명 발표해

백골단 해체, 고위 관원자 전원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성명서가 김대준(국문과), 조의연(영문과), 임호일(독문과), 강석원(일본학), 양봉환(철학), 연기영(법학), 한상범(법학), 김진철(정치외교학), 신익실(행정학), 강경주(사회학), 조은(사회학), 김익기(사회학), 박강식(경제학), 이영환(경제학), 한진수(외국어), 주종환(농업경제학), 유덕기(농업경제학), 김동준(국어교육), 최순열(국어교육), 정대섭(역사교육) 등 20명이다.

이제까지 20여명은 현시국에 대한 교수들의 정치적 양심을 호소하며 서명작업을 벌여 지난 9일 20명의 교수명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명서에는 △민권회복운동에 대한 탄압 중단 △보안법등 민주헌법 취미 △백골단 즉각 해체 △고위 관원자 전원 구속수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국성명서에 참여한 교수는 김대준(국문과), 조의연(영문과), 임호일(독문과), 강석원(일본학), 양봉환(철학), 연기영(법학), 한상범(법학), 김진철(정치외교학), 신익실(행정학), 강경주(사회학), 조은(사회학), 김익기(사회학), 박강식(경제학), 이영환(경제학), 한진수(외국어), 주종환(농업경제학), 유덕기(농업경제학), 김동준(국어교육), 최순열(국어교육), 정대섭(역사교육) 등 20명이다.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강군 장례식 연기... 시국 긴장
유족 "시청앞 노제 없인 장례식 못 치른다"

강경대열사 장례식이 어제(14일)경철의 시청앞 노제봉해 방침으로 중단돼 연기됨으로써 오는 18일 2차 국민대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민주화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범국민대회회의가 주관한 '강경대열사 민주국민장'은 오전 8시30분 명지대(소강당)에서 발인제와 영결식을 가진 데 이어, 경호 홍남교에서 운구행렬 방향을 놓고 '연희동 진출을 불가한 경찰의 행진 저지로 3시간동안 경지했다' 오후6시 신촌로타리에서 '6인 열사추모제'를 가졌다.

추모제는 권영길 대총회의상 임대표의 경과보고, 지선순님의 추모사·분향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시청앞 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이대입구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다연발총탄을 쏘며 저지하자 신촌로타리부근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한편 대총회의는 오후10시 강경대열사 시신을 연세대 학생회관으로 옮기고 "정부가 시청 앞 노제를 허가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강경대의 장례식이 경찰의 저지로 무산됨에 따라 내일(16일)각단위 토론회, 17일 출정전야제및 철야농성에 이어 광주항쟁 11주년을 18일 2차국민대회에서 5월 총선거 투쟁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정국은 점점 한층더욱 예습할 수 없을 만큼 들끓고 있다.

대학원생도 폭력살인 규탄
악법폐지-책임자 처벌 요구

제7대 대학원학생회(회장=김병호·정치학 박사과정1학기)는 지난9일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 성명서를 내고 어제(14일)는 연세대에 걸친 장례식에 참석하는등 현시국과 관련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학원학생회는 지난 9일 오후 도서관앞에서 열린 비상학생총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헌정권은 교체를 앞두고 자신들의 반민주적·반민주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과 독재 공안특위의 종식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이차리에서는 △철거한

교육자차·합법성쟁취 대회
학교당국 장소사용불허로 마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교육자차진포를 위한 '제6회 교사의 날 기념식'이 지난10일 오후7시 본교중앙당에서 서울지부 교사전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살인폭력정권규탄및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위한 힘겨운 싸움'을 결한 이날 집회는 1부에서는 참모사상사상, 2부에서는 시국선언부고, 투쟁전략과 계획, 선언문 채택 등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참모사상은 고신용진(전 부산구덕고)교사가 받았는데 동생 신인숙씨는 "오빠가 못다한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위해 힘겨운 싸움"이라며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서울지부장인 김남선씨는 대회를 통해 "독재정권이 옹호된 교육권을 교육주체가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당초 홍익대에 열기로 했으나 대회의 원전 봉쇄로 장소를 본교로 옮겨 진행했는데 학교측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집회인데 밤에 진행되는 외부집회는 통제할 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인건비 인상적용 거부
학교당국서 노사합의 내용 파기

직원노조(위원장=문옥래)는 지난 1일 제4차 노사협상에서 타결된 사항에 관한 조인식을 지난 10일 학교측에 요청했으나 학교측이 "합의 내용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김용정부총장, 문옥래노조위원장등 10명의 학교측, 노조측대표들은 학교측이 거부한 경우등을 들고, 노조측의 입장을 제의했다.

이날 학교측은 지난 제4차 노사협상에서 타결을 본 기본급 7%와 본봉 2인월치인 인상 합의 사항이 재단이사회에서 심의한 '91년도 예산확정안중 인건비초과액이 생김으로 임금에서 기본급 7%, 본봉 2인월치인 인상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노사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중 임금협정부분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해설』 강경대 쇠파이프·피살정국 이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다치고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학생회 차원에서 부평의

기획특집 :
플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
일발결에 첫발을 댄 평생을 살았다. 이윤상 광역의회 선거, 구호를 행동으로 보일 때 최현수 세계각국의 유형별 지자체 비교 김기욱

5
캠퍼스저널
CAMPUS JOURNAL

값 3,500원
정기구독 신청및 문의 323-7722(대)

취업특집 :
상반기 전역예정장교 채용현황
상반기 주요기업 채용현황 도표
장교출신, 정확한 정보와 면접에 주인공을 성경아

대학은 환경의 치외법권 지대인가 서동면
전대협 총회를 통해본 올해 학생운동방향 남승호

4.19혁명 31주년, "내아들이 못다한 일하는구나" 정승원
광주, 언제쯤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최효덕
전환시대 대학인론의 고뇌 "우리 때는 안그랬는데..." 한희덕
축제, '페스티벌에서 대동제까지' 전유선
전국 대학생이 말하는 '나의 관심사 나의 고민' 김호영
스승과 제자 폭행사건, 그림에도 불구하고 주철환

물리학과 동양사상의 만남 '신과학' 서동면
남과북이 다듬은 말 김복분 페미니즘과 문화 김경수
지명의 유래/동학혁명의 진원지, 민선보 시시용어 매일경제 편집부

한국의 상징 영웅, 집단적 욕망의 현상학 김현
좋은 글 깊은 뜻 내면적 삶의 변화에 대하여 치오란
팝 컬럼 환경문제 고발하는 미드나잇 오일 임진모
시네마 에세이 걸프전으로 다시본 아라비아의로렌스 이명원

수필 몇 학년이세요? 이진우
학술서평 제국주의와 한국사회 정건화
소설대학사 면회 표성흠

문화가 반사경
정신의 자유자라는 낯선길 김진수
연극 우부대왕, 현대극의 계기미련 김미도
영화 한국영화 지금 변혁중 강한섭
무용 무용은 관객에게로 관객은 무대로 배혜령

카메라 초점 다시 4·19를 맞으며 권형선
권두칼럼 대학에서의 수학 현승중
만나봅시다 여성농민 김명숙씨 성경아
탐방 성대 성찬경 교수 "교철로 예술작품" 최효덕
인기강의 동국대 이만근 교수의 변증법적 유물론 윤천희
유학기이드 호주편 김근준

제2기 명예기자들 모집합니다.

①하는 일
· (웹사이트)에서 다루는 '대학의 현황과 진로' '대학의 인가' '우리대학의 이름' 등 고등교육과 사회사상 분야·특종 등의 보도를 맡는다.
· 본지 기획취재팀에 합류, 공동으로 취재·기사를 작성.
· 기타 본지에 필요한 대학·학술·유학 등 각종 정보제공
②동시취재
· 전국 각지에 재학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으로 본지의 성장·발전에 관심이 많은 분
· 해외유학생 또는 유학준비중인 분
※기사작성 유망할지 환영
③특징
· 매일 (웹사이트)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본지 취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본지와 함께 채택된 원고는 교외 지급
· 활동 중 그 공로가 크게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후 본사 발행 신문·잡지 기자 경력 특채
④채용서류
· 제4차(종합)성서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현재 활동상황 중 심으로 200자 원고 2매) 2부
· 기(원)기(원)장(원)장(원)장

대학의 현황과 진로

길들여진 여성에서 주체적 여성으로이경원
이것도 조교일인가?김연희
학문활성화를 위한 교수 연구단체이경원
"늦도 지겨운데 문무대를 또 가"한희덕
학생도 답답 교수도 답답, 외국인 교원장의김영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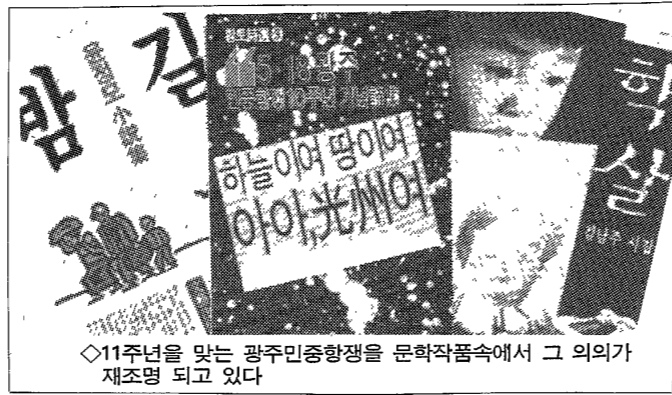
감정적 차원되고 '민중'의 역사적 진출 형상화

점은 70년대의 문학운동이 소위 양심적 지식인 중심으로 진행되던데 반하여 획기적인 '발전의 측면'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70년대의 문학운동이 지식인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한계를 띠고 있다는 점이 아니라 '유물론적이지 못한' 면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때, 광주항쟁을 다룬 작품의 변모양상이 과학적으로 율계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①시작품에서의 변모양상

먼저 시에 있어서의 광주항쟁을 다룬 작품의 변모양상을 보면, 한마디로 80년대 초기의 단계에서 담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쟁을 다룬 시작품의 경우 장르의 특성상 급박하게 현실의 부름에 응할 수 있었던 80년대 초기에 수많은 작품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 이후 제대로 항쟁을 전면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작품은 불과 몇몇 작품에 국한되고 있다. '시와 경제' 등의 몇몇 작품과 김준태, 문병란, 박광우, 박봉우, 그리고 김남주 시



11주년을 맞는 광주민중항쟁을 문학작품속에서 그 의의가 재조명 되고 있다

행한 사태(?)를 빚기도 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 시는 그 당시의 민중의 '한'과 '눈물'을 그리면서 꺾이지 않는 민중의 투쟁의 의지를 잘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타의 시를 보면 시인들이 부제의식에 사로잡혀 민중의 슬픔과 좌절의 심정과 자기연민을 그리고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물론 이같은 현상은 시대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나, 시인들의 현실극복을 위한 치열한 자세와 과학적 전망을 발견하

는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김남주 시인이외의 시에서 우리는 최근까지 광주항쟁을 역사의 합법칙성의 바탕위에 선 작품을 찾을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무적으로 소재, 제재차원에서 광주항쟁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은 없으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사회운동의 측면 뿐 아니라 그것의 측면을 문학적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는 남겨진 것이 아닌가. ②소설작품에서의 변모양상

'깃발'...광주항쟁을 노동자의 관점으로 본 최초문학

분노·한을 주조한 투쟁에의 의지 그려

70년대 지식인 중심에서 민중중심의 문학으로 탈바꿈

인 작품들을 우리가 손가락으로 꼽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시의 흐름을 따져 보도록 하자.

필자는 시에 있어서의 양상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고 본다. 하나는 항쟁 직후의 경황과 일치하며, 주로 표현된 정서를 면면히 살피면 항쟁이 가져다준 충격을 '분노'와 '저항'을 주로 표현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이다. 실상 소시 민중의 시인들이 항쟁으로 인한 충격을 견디지 못해 펜을 털을 포기한 경우가 숏하게 많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나름대로 80년대 초 고통과 분노의 불을 던지고 그 감정을 시로써 형상화하려고 노력했던 작가들에게 찬사를 보내줄 만하다. 그러나 좀더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이 당시의 '시쓰기 행위'는 현실적인 문제의 본질을 시적으로 다룬다는 보다는 단순히 즉각적인 감정의 표출에 머무르고 있다. 김준태의 '아아 광우여, 우리들의 심장가'는 광주항쟁 이후 항쟁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시로써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이 시로 인하여 김남주 '전남매일신보'가 폐간되는 불

러는 노력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

또 하나의 흐름을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서 김남주의 '옥성시계열' (특히 시집 '나의 갈 나리', '인동, 1987'에서 찾을 수 있다. 불같은 열정으로 민중·민중의 현실에 입각한 그의 날카로운 시는 치열한 문부대결로 항쟁이 던져준 뼈저린 교훈을 아로새기고 있는 것이다. '오월 어느날이었다' 80년 오월 어느날이었다/광주 80년 오월 어느날 밤이었다로 시작되는 '학살'과 '학살행위'를 자행하고도 버티고 '우파에 앉았는 학살 원흉'의 모습을 그린 '학살'을 보자. 이 작품은 광주항쟁에서 우리가 오늘날

소설의 경우 역시 시기적으로나 그것이 표현된 현실주의적 측면을 살펴볼 때 두 가지의 흐름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80년대 중반이후 발표된 임철우의 '사상하는 여름'(85년), '죄선과 특가스'(84년)와 최윤의 '저기 소리없이 한 집 뒷마당' (88년) 등의 작품들이다. 이들은 작품계열은 광주항쟁이 가져다준 (주로 정신적인 면모를) 정신병리학적 접근법으로 항쟁으로 인한 상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즉 현실 속에서부터 찾기도는 세계를 '변용된 알레고리'로 차용,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양상은 윤정모의 '발길'(85년), '남'(86년)과 정도상의 '심오방 이야기' 그리고 홍희담의 '깃발'(장비 88년) 등의 작품들이다. 이 경향은 광주항쟁의 참뜻 (과학성-계급성의 확보)을 현실속에서 그려려는 작가의 시도가 잘 드러난 작품들이다. 역사의 증언을 위해 도정이 함락되기 직전, 야행을 하는 젊은이와 신부의 내면적 갈등을 그린 '발길'이나 진압군이었

던 한 공수대원이 감옥에서 대학생과 만남으로써 자신 또한 희생자였음을 알아 차리는 과정을 그린 '심오방 이야기'는 다분히 주관주의적 요소 또한 있지만, 치열한 작가정신이 표출된 소설이다. 그러나 광주항쟁을 우리문학 최초로 노동자의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홍희담의 '깃발'은 주목할 만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주인공 '순범'의 형상화를 통해 진정한 노동자의 정서를 탄탄한 소설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작품 또한 노동자계급의 변혁적인 전망을 보여주는 데는 미치지 못하고, 그 씨앗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글을 맺으며
여태까지 필자는 광주민중항쟁이 갖는 현실적인 의의의 측면을 문학작품에서 드러난 소재 혹은 제재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그를 통해서 필자는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광주민중항쟁의 본질적인 관계 (과학적, 계급적 내용의 확보)를 제대로 시나 소설 모두 보여주지는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초기엔 다분히 즉각적인 감정의 표출 그리고 정신병리학적 접근법으로 '알레고리'를 내세우는 등의 모습을 띠었다. 후기에 점차 현실적인 의의를 문학적으로도 장악하려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 그 또한 한계의 측면 또한 엄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사회운동 뿐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그것의 중요한 면을 총체적으로 담고내고 나아가 독자들에게 전지한 감동을 던져 줄 때 참뜻을 잇는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행위가 있다. 그 작업이 야말로 새로운 변혁의 전망을 배어 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비로소 민중과 노동자계급이 주인공이 새 세대의 건설을 향한 힘찬 전진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

고영직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 문학분과)

우리 주위엔 아직 이런분들이 존재합니다.

매월 30만원씩을 재소교포 3, 4세들의

우리말 교육을 위해 선뜻 내놓은

구미시 김기중씨가

본교 김홍우교수에게 보낸 편지.

김홍우 교수님 보세요

불이 화창하군요.

저는 한국연극사 80년, 연극영화의 해라고 화려하게 벌여놓은 무대를 TV에서 보았고 문화부장관의 고마우신 격려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경향신문에서 '소련속의 한국연극' (대중문화)라는 기사를 읽었던 저로서는 웬지 서글프고 어떤 장면은 역경까지도 했습니

다. 재소 조선극장이 곧 60주년을 맞이한다면 나라를 잃었던 시절에 시작되었으니 그동안 행용키 어려운 고난속에서 별애별 시련을 다 극복하고서야 지금에 이르렀을 것임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진대 세계에 자랑하는 올림피아를 딱 벌여지게 치루고 배가 터지도록 부자기런(?) 조국이 당당히 존재하는 오늘 대가 꿈이게 되었다니 이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며 파소비의 흥수속에 떠밀려사는 한국인, 우리네의 한심한 모습이란 말입니까?

자기가 처해있는 입장에 알맞은, 작지만 좋은 일을 실천하여서 크고 좋은 일만 생각하자는 평생 좋은

일을 할수 없다고 믿어 온 저는 일거에 해결할 수 없는 저의 미련함에 새삼 답답하게 느끼며 며칠간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한결같은 애정처럼 뜻깊은 사람이 몇 모이면 좋은 열매를 맺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르리 일단 매월 30만원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이글을 올리니 선생님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저는 13년간의 밀담공무원 생활을 10년전에 청산하고 조그마한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일하는 마음으로 쉼 없이 운영되어 가정생활도 안정된 곳 이므로 소련속의 조선극장이 존속하고 민족문화를 이어갈 재소교포가 필요로 하는 한 비록 작지만 할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저의 뜻을 헤아려 주셔서라도 자랑스러운 문화민족의 피땀이 이바람을 더욱 자라하며 살이 갈수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비탕 연극이나 예술에는 문외한이저

1991.4.9

김기중 올림

지난 3월27일(본지 1070호) 동대신문 6면컬럼인 '달라진경향'란에는 김홍우(연극영화학파)교수의 '소련국립 조선극장장의 편지'라는 글이 실린바 있다.

기사내용은 92년에 60주년을 맞는 재소극립 조선극장의 극장장인 김블라지미르씨는 소련 알마타에서 만난 김교수에게 재소교포 3·4세들이 한국말을 못하므로 후배양성이 안돼 소련의 한국연극계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토로했다. 그리고 김교수에게 이란 재소교포 3·4세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칠 기회를 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경향신문 4월3일자에 '소련속의 한국연극 대공황위기'라는 기사로 나가게 된

다. 바로 이 기사를 접한 구미시에서는 김기중씨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김교수에게 편지를 띄우게 되는데 매달 30만원을 지급할터니 재소교포 3·4세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다. 김교수는 김씨의 뜻깊고 감개 무窮한 편지를 보냈고 본교에서는 오는 6월중으로 그곳의 유학생 2명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한다.

매달라만 가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김기중씨와 같은 사람이 그리도 아끼는 우리주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의 '미담'을 넘어선 이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들을 시사해 준다. <문화부

▲'先生'이란 단어(또는 단어)를 일컫는다. 물론 그 속에 단순한 연정자의 의미보다는 세상을 좀더 많이, 앞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만큼 인생의 연정이 쌓여서 평가를 본받을 수 있을만한 사람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판단과 행동은 '신중함'과 '올바름'에서 나와야 하며 그럴때만이 진정한 '先生'의 호칭을 받을만한 자격이 주어지리라. ▲강경대군의 죽음과 연이은분신후는 국민적 절망과 비탄속에서도 곳곳이(?) 버티고 있는 정권을 향해 현실교사들은 '5·10사대'를 전후해 노정권비전등 근본적인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전국 8백60여명의 대학교수들의 시국선명서와

항의농성도 잇따랐다. 요즘은 초·중·고 교사들과 대학교수들까지, 이른바 '先生'이라는 사람들이 정권을 향한 정면돌진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시국선명서 관련 교사들에게 '경위서'를 운하하며 현실교사들에게 탄압을 가하려 한다. ▲얼마전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또다시 '35초'라는 기동성신 속에

▲'先生'이란 단어(또는 단어)를 일컫는다. 물론 그 속에 단순한 연정자의 의미보다는 세상을 좀더 많이, 앞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만큼 인생의 연정이 쌓여서 평가를 본받을 수 있을만한 사람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판단과 행동은 '신중함'과 '올바름'에서 나와야 하며 그럴때만이 진정한 '先生'의 호칭을 받을만한 자격이 주어지리라. ▲강경대군의 죽음과 연이은분신후는 국민적 절망과 비탄속에서도 곳곳이(?) 버티고 있는 정권을 향해 현실교사들은 '5·10사대'를 전후해 노정권비전등 근본적인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전국 8백60여명의 대학교수들의 시국선명서와

서 날치기 통과됐다. 이법은 '국가'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의 실상은 '전교조'를 불법화하고 한국교총을 유일한 교적단체로 인정하려는, '속보'는 '짓'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89년 1천5백명이라는 역사

상 유례없는 수의 '선생'들을 '공무원 노조'설립은 불법'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해직, 하위야 침에 거리로 내몰았지 않은가. 교직원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현 정권이 말이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 아니라... 이젠 또 무슨 일인지, 스승의 날 전지 10여일 후면 사망하는 제자들을 교단이 아닌 교문 밖에서 바라만 볼 수 밖에 없는 거리의, 그러나 엄연한 '선생님'의 또다른 잔치(?)날이 돌아온다. 며칠전 대 선배이자 현재 해직교사인 선생님 한분을 만났다. 어떻게 지내시느냐는 물음에 "편이디서 써주나? 낮에는 노가다도 좀 뛰면서 그러저러 살지"라며 오히려 활하게 웃던 선생님을 스승의 날을 맞아 진정한 '先生'으로 부르고 싶어서 웃으며 웃안송이라도 가슴에 꼭 달아드리고 싶어점은 웬지 모르겠다.

(속)



교수님, 스승의 날입니다.

교수님, 스승의 날입니다.
늦은 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토론하던 기억이 아득히 가슴속에 저며옵니다.
스승다운 스승, 제자다운 제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시대의 올바른 스승상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요.
저희는 학문적으로 성숙한 스승과 더불어 인생과 시대에 대하여 함께 논하고 제자의 허물을 지적해 주시는 '우리들의' 스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대학교육이 강의실에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제자와 더불어 교외하는 참다운 지성인의 모습과 정도를 열어 주는 스승님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스승님 가슴에 존경의 꽃을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동대신문사

